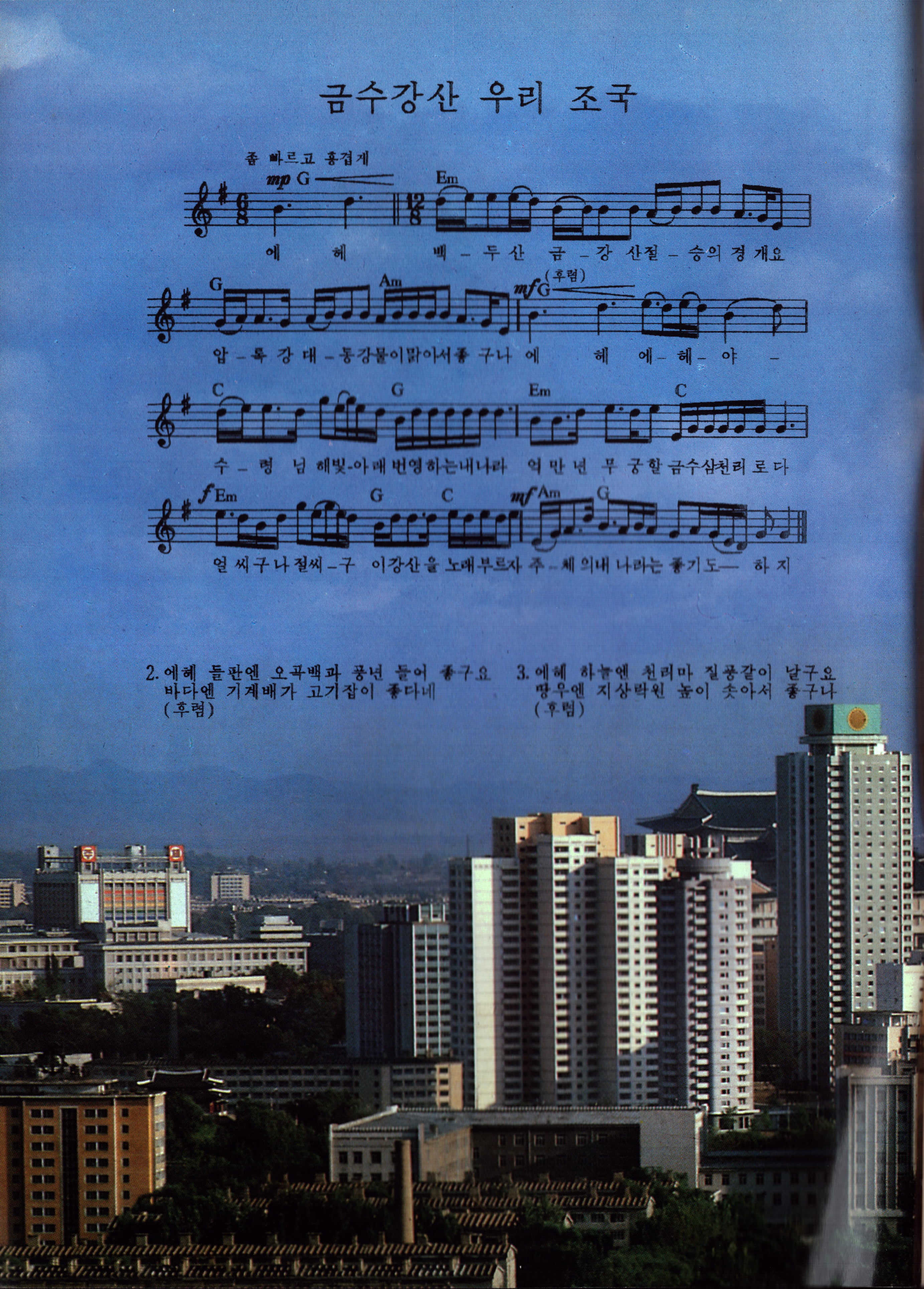


금수강산

12

주체89(2000)



금 수 강 산

월 간

주체89(2000)년 12호 (루계 제136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조국사

차 례

민족의 앞길에 펼쳐 진 밝은 전망 · · · · 2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 · · · · · · · · 3
10월의 환호성 · · · · · · · · · · · · · 4

반 향
승리자의 대축전(외 3건) · · · · · · · 13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중에서
신념과 배신(3) · · · · · · · · · · · · 15
통일의 밝은 앞날 함께 마중합시다 · · ·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 · · · · · · · · · 18

인상기
조국에서의 마지막하루(외 2건) · · · · 20

편 지
너를 기다린다 · · · · · · · · · · · · 22

고향소식
고향땅을 밟을 때 · · · · · · · · · · · 23

<조국의 품에 안겨>
수송대장의 하루 · · · · · · · · · · · 25
덧쌓여 지는 행복 · · · · · · · · · · · 27

별처럼 빛나는 생애 · · · · · · · · · · 28
노래의 나라 · · · · · · · · · · · · · · 29
제도와 우리 생활 · · · · · · · · · · · 31
돌우에 꽃이 핀다 · · · · · · · · · · · 32
우리 말의 우수성 · · · · · · · · · · · 33
《충격은 평생을 가도》 · · · · · · · · 34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 · · · · · · · 35

사 화
을밀대의 소나무 · · · · · · · · · · · 36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활성화되고 있는 인민경제 · · · · · · 38
북방의 새 모습 · · · · · · · · · · · 39
발전소건설 · · · · · · · · · · · · · 41
전망이 좋다 · · · · · · · · · · · · 42
과학기술이 중시된다 · · · · · · · · 43

마음의 한글을 조국에 · · · · · · · · · 44
화가 김두량 · · · · · · · · · · · · · 53
《귀무덤》이 전하는 교훈 · · · · · · · 54

장편실화
나는 조선사람이다 · · · · · · · · · · 55

표 지: 조국분단 50년만에
(서울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상봉)
사 진: 김 휘 률

뒤표지: 경 축 의 밤
사 진: 진 철 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082129

민족의 앞길에 펼쳐 진 밝은 전망

력사에 전무후무한 대흔적을 남긴 20세기의 마지막해 2000년이 저물어 간다.

이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자고 우리 조국은 정초에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을 발표하여 온 나라 인민에게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고 호소하였다.

그에 호응하여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따라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틀어 쥐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제부문이 들끓고 혁명무력이 일층 강화되였으며 보다는 어렵고 곤난한 환경속에서도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더 굳건해 졌다.

돌이켜 보면 이 한해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비할바없이 높아 졌다.

세기의 분기점에서 력사를 돌이켜 보면 옳바른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에 우리 민족은 40년간이나 일제의 총칼밑에 짓이겨 져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하지만 민족의 은인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광복하여 주시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워 주시여 우리 인민은 남 부러운줄을 몰랐다. 걱정이 있다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 져 사는 민족분렬의 아픔이였다. 분렬은 민족에게 재난과 고통밖에 가져다 줄것이 없다.

장장 50여년을 갈라 져 살아 온 우리 민족이 부흥하고 번영하자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하기에 발표된 공동사설은 통일만이 살 길이고 조선민족이 부흥하는 길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한해에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김일성**주석의 뜻이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이 광복된후 국토의 량단의 위험성을 헤아리시고 북과 남의 정당, 단체대표들과 애국적인 인사들과의 회의를 마련하시여 조국통일문제를 론의하시였으며 민족의 분렬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시였다. 뿐만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들을 내놓으시고 인민들을 조국통일투쟁에로 불러 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나오자마자 내외의 환영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에조차 통일된 조국을 생각하시며 조국통일문건에 서명하시였다.

주석의 조국통일뜻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그리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통일성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 6월 국토가 량단된후 처음으로 북남수뇌들의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여 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 놓으시였다.

북남공동선언에서는 조국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통일을 위한 북과 남의 제안에서 공통성을 찾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도록 하였으며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과 남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데 대한것 등 여러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북남공동선언에는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이 집약되여 있고 장군님의 애국열의와 통일의지가 반영되여 있으며 7천만 온 겨레의 지향과 숙원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 그것으로 하여 북남공동선언은 발표되자 전체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과정을 통하여 민족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 인민이 제일 절절히 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국통일위업의 실현을 위해 자신을 바치시는 장군님의 무한한 헌신성을 인민은 절감하였으며 마음속격정을 터뜨리었다.

그이 계시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

우리 인민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 통일에 대해서도 조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락관하고 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이 이루어 지고 평양과 서울에서는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이 마련되였으며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시에 당의 품,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오는 력사적사변도 일어 났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루어 진 새로운 국면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통일만이 살 길이고 통일만이 애국이며 통일만이 민족이 부흥하고 번영하는 길이라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조선민족이 세세년년 복락을 누릴수 있는 길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통일된 조국에서 강성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길이다.

7천만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통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가장 빠른 시일에 민족적숙원인 조국의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강성대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앞길에 최고사령관기가 힘차게 나붓기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경과 승리, 영광의 상징인 최고사령관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한 9돐을 맞이하고 있는 뜻 깊은 이 시각 성스러운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르는 나의 가슴속에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인다.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가슴 부풀어 오른다.

최고사령관기, 조용히 그 이름을 외울 때면 나의 눈앞에 숭엄하게 안겨 오는 불멸의 화폭이 있다.

주체80(1991)년 12월 24일 이 날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탄생일과 함께 우리 조국과 인민의 력사에 또 하나의 행운의 날로 기록되여 있다. 바로 그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지지와 념원속에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력사의 그날 장군님을 우러러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소리높이 터치던 만세의 환호성이 오늘도 나의 귀전에 쟁쟁하게 들려 오는 듯 싶다.

그때로부터 지난 9년은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이 우리 조국과 민족,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데서 얼마나 큰 행운으로 되는가를 순간마다 절감한 나날이였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라는것을 온 넋으로 확신한 나날이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9년간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던가.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과 자연재해가 계속되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령도 따라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걸음마다 승리와 영광을 떨쳐 왔다.

군대는 곧 인민이며 국가이며 당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최전연에서 최전연에로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군령도의 나날에 그이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그이께서는 주체83(199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만도 무려 12만 350여리의 머나먼 군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오시였다.

눈 덮인 험한 령길을 넘고 찬비 뿌리는 진창길을 헤치시며 서해의 외진 섬초소로부터 적들과 총부리를 맞댄 판문점초소에 이르기까지 전선동서, 중부를 주름 잡으시며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겨 오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백두령장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전략전술적지략의 빛나는 그 자욱자욱마다에서 군사적기적이 창조되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철옹성같이 다져 졌다.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군대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라났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차넘치게 되였다.

참으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결정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치, 주체적힘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가장 자주적인 정치,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견지명의 정치로 강성대국건설의 대들보를 마련하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그 어떤 말과 글로 써도 다 칭송할수 없다.

정녕 장군님은 백두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로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시며 백전백승의 령군업적을 이룩해 나가시는 천출명장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9돐을 뜻 깊게 맞이하는 이 시각, 원수별 빛나는 성스러운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르며 나는 다시금 심장으로 확신한다.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날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며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이 반드시 일떠서리라는것을.

조선인민군 장령 김재풍

10월의 환호성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도 평양의 하늘가에 조선로동당창건 55돐 경축의 축포가 올랐다. 폭풍 같은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장엄한 열병대오와 군중시위의 꽃물결, 춤바다와 홰불의 대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사회주의승리자들의 대축전으로 영원히 기록될 이 뜻 깊은 경축행사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진행되였다.

실로 환희로운 10월의 명절이였다.

력사의 **김일성**광장, 여기서 10월 10일에 펼쳐 진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의 흐름은 그대로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혁명대오의 영웅적기상과 필승불패성을 과시한 장엄한 서사시적화폭이였다.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보여 주며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간 각급 군사학교종대들, 근위부대종대들, 혁명학원종대들 그리고 로농적위대종대들과 붉은청년근위대종대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손을 높이 드시여 열정 넘친 열병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수도의 거리거리는 그이의 사열을 받은 열병대오를 열렬히 환영하는 각계층 시민들의 기쁨, 환희로 설레였다.

열병식에 이어 드넓은 광장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립상을 선두로 당기발대렬, 군인가족대렬, 행복춤대렬, 영웅, 공로자대렬, 소년단대렬, 청년대렬, 취주악과 중북춤대렬 등 시위대렬들이 가장물과 그림판, 각종 구호들과 함께 꽃바다를 이루고 흘러 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광장을 꽉 메우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높이 드시여 거듭 답례하시는 장군님,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우러러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꽃다발을 흔들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

장군님과 군중들, 정녕 이 감격적인 화폭은 령도자와 인민, 당과 인민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사랑과 충성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자랑찬 모습이였다.

경축의 10월 11일 밤 **김일성**광장은 청년학생들의 화려한 춤바다와 홰불행진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청년학생들은 노래선률에 맞추어 청춘의 삶과 행복을 활짝 꽃 피워 가는 끝 없는 기쁨과 자랑을 흥겨운 춤률동에 담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초상기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를 선두로 한 청년들의 홰불대오는 광장을 누비며 장엄한 행진을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열혈의 청년전위들에게 손을 드시여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폭풍 같은 환호성, 경축의 축포는 10월 12일 저녁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경축하여 10만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서사시적화폭아 펼쳐 진 5월1일경기장에서도 터져 올랐다.

주석단 관람석에 나오신 장군님께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구가하는 장면들과 글발들이 배경대에 련이어 새겨 지고 경기장바닥과 특수무대들에는 기백 넘치는 집단체조와 아름다운 춤률동이 장쾌한 음악선률에 맞추어 화려하게 펼쳐 졌다.

장군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12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충성을 맹세하는 례식에 참가한 륙해공군장병들,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의 발걸음소리로 세차게 끓어 번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종대지휘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신 극장에서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올랐다.

10월의 나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기념 전국연구토론회와 국가도서전람회, 국가미술전람회, 혁명의 성산 백두산사진전시회, 전국웅변대회, 전국인민예술축전종합공연, 조선우표전시회, 제1차 평양화초전시회 등 경축의 다채로운 화폭들도 아로새겨 졌다.

참으로 뜻 깊은 대축전장에서 터져 오른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성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흠모심의 분출이였으며 조선로동당의 혁명적기치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려는 불 같은 맹세의 폭발이였다.

10월의 환호성은 영원히 메아리쳐 가리라!

본사기자 려순옥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주석단에 계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열병식과 군중시위















잡화상점
경 55돐 축


장군님을따라천만리


조국
통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3대헌장 민족대단결 5대방침
자주통일
북남공동선언


위대한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하는
4.25
위대한선군정치만세!


조선민주주의
자주 평화 친선













45페지에 계속

승리자의 대축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10월 10일입니까.

그렇게도 우리 모두의 흉벽을 세차게 두드려 주던 당창건 55돐 기념일의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어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 선 우리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끝 없는 긍지와 희열에 넘쳐 있습니다. 단순히 보통의 위훈으로 맞이한 오늘이라면 우리의 격정 이렇게는 크지 않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손길 따라 혁명의 멀고 험한 항로를 헤쳐 온 조선로동당, 당을 따라 혁명의 길을 달려 마침내 오늘의 대축전장에 들어 선 자랑과 긍지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표로 축전에 참가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열병식과 군중시위,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홰불행진, 10만명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보면서 실로 많은것을 느끼였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영광 넘친 오늘의 행복도 당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는 저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단 한번의 로선상 착오도 없이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저는 당일군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조선로동당 평양시 평천구역위원회
책임비서 최인덕

인민의 《어머니》



축포가 오르고 만민의 환호성이 10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칩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감회 꽉 차오릅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분기점에서 오늘의 승리에로 치달아 오른것은 과연 무슨 힘의 원천이였습니까.

그것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최악의 시련과 난관의 고비를 넘고 넘으며 단 한번의 탈선과 우여곡절도 없이 사회주의를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 온 조선로동당,

하기에 이 뜻 깊은 10월 10일에 우리 인민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목 메여 노래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진정한 인민의 《어머니》라고…

저는 한개 구역 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 이 시각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며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된 일군이 되겠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김국남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로



조선로동당창건 55돐, 이는 정녕 사회주의승리자들의 우렁찬 함성이 온 천지를 진감한 환희의 명절이며 우리 인민이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고 세기의 령마루에서 승리자의 쾌감을 가슴 뿌듯이 느끼며 맞이한 뜻 깊은 명절이였다.

수도 평양의 밤하늘을 물 들이며 도도히 굽이쳐 흐르는 홰불행진대오, 손에손에 활활 타오르는 홰불을 추켜 들고 기세충천하여 **김일성**광장을 행진해 나가는 조선청년들의 모습에서 세계는 과연 무엇을 보았던가.

그것은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제시하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시대의 영웅, 참된 애국자로 자라나 청춘의 삶과 행복을 활짝 꽃 피워 가는 조선청년들의 끝 없는 기쁨과 자랑이였다. 그것은 또한 세상에 둘도 없는 당복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의 가장 믿음직한 정치적후비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 갈 불굴의 기상, 혁명적열의였다.

그렇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안겨 주신 혁명의 홰불을 높이 추켜 들고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향준

희한하고도 장엄한 군중시위

나는 이번에 조국에 와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보는 행운을 지녔습니다.

주석단을 우러러 씩씩하게 나아가는 열병대오와 환호를 올리며 격정을 터뜨리는 시위군중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난생처음 보는 희한하고도 장엄한 군중시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 지고 눈시울이 뜨거워 졌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의 참뜻을 이번처럼 강렬히 느껴 보기는 짧지 않은 저의 생애에서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것을 혼자서 본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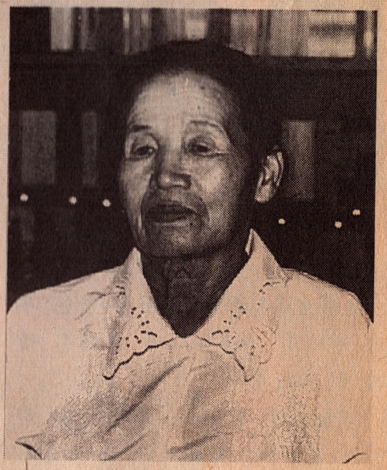
10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열병대오의 힘찬 발걸음소리와 시위군중들의 환호성은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흠모심과 신뢰심의 분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여러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속에서도 조국인민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설수 있게 된 비결을 이제야 똑똑히 알았습니다.

정말 신심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보다 부강해 질 내 조국의 앞날이 눈앞에 보입니다.

로씨야 깜챠뜨까주 허순음



신념과 배신(3)

(전호에서 계속)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쉽게 배반하는것은 신념이 없이 추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불평분자들, 우연분자들, 탐위분자들, 의지박약자들, 행세식운동자들이였습니다.

일을 태공하는 사람들, 임무수행에서 무책임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맡기면 얼굴부터 찡그리면서 이타발, 저 타발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혁명이다 뭐다 하고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제 주머니를 채우느라고 여념이 없는 사람들, 남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서슴없이 만드는 사람들, 거짓말을 식은죽 먹기로 하는 사람들, 이런 류형의 인간들도 기회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붉은기를 팽개치고 적진으로 빵소니를 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형의 인간들에게서 찾아 보게 되는 하나의 공통점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 량심을 저버린자들이라는것입니다.

혁명가에게서 량심을 떼놓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리념도 사상도 도덕의리도 다 무너집니다.…

혁명가가 되기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것은 곧 량심을 가진 존재, 도덕의리에 충실한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해야 한다고 한 **김정일**동무의 말은 명언입니다.

량심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가로 될수 있고 량심에 때가 오르면 신념에도 때가 오르며 량심에 금이 생기면 신념에도 금이 생기고 투지가 마비됩니다.

…

량심을 버린자들과는 같이 길을 걸을수도 없고 한가마밥을 먹을수도 없습니다.… 그런자들과는 헤여져야지 헤여지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지갑룡도 량심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혁명가의 면모를 잃었습니다.

내가 지갑룡의 행동에서 비량심적인 색채를 발견한것은 륙과송전투에서였습니다.

륙과송전투에서 주공방향은 적병영이였고 그것을 담당한것은 7련대와 황정해네 구분대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자 벼락치듯 총소리가 울렸는데 몇분 지나지 않아 총성이 뚝 멎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다시금 요란한 기관총소리가 병실쪽에서 울려 왔습니다. 왜 기관총소리가 다시 울리는가 하고 이상스레 생각한 나는 즉시 정황을 알아 오도록 지갑룡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갑룡은 병실로 가다가 되돌아 달려 오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보니 싸창목갑이 적탄에 맞아 터졌을뿐 몸은 상한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겁을 먹었다는것을 알고 지봉손과 김학송에게 다시 과업을 주었습니다.

지봉손과 김학송은 비발치는 적탄속을 뚫고 전투장으로 달려 가 적패잔병들이 병실밑 비밀지하도에 들어 박혀 반항하고 있다는것을 알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나는 즉시 대원들을 병실에서 철수시키고 화공전술로 지하도를 제압하라는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명령이 가닿기전에 오중흡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오중흡은 자체판단으로 화공전술을 썼지만 대원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서둘러 수색작전을 벌리다가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은것입니다.

만약 지갑룡이 되돌아 서지 않고 제때에 병실에 달려 가 정황을 알아 왔더라면 우리의 명령이 지체없이 오중흡에게 전달되였을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수도 있었습니다.…

지갑룡은 그때 이미 전투원의 량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이라면 중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되돌아 서지 않았을것입니다.

…

량심을 버리고 혁명을 배반한자들의 말로는 어느 경우에나 다 비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날까지 혁명적인 량심을 간직하고 신념을 고수한 투사들에게는 인민이 꽃보라를 뿌려주고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8도구광산에서 로동을 하다가 유격구에 찾아 와 입대청원을 했을 때 비조직적으로 왔다고 림수산에게서 수모를 받았던 박성철은 그후 간고한 투쟁의 길을 끌

까지 걸어 조국으로 돌아 왔고 오늘은 국가의 주요한 직책에서 혁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박성철은 행군도중 지휘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철은 집에 들어 가자마자 생각지도 않던 봉변을 당했습니다. 안해가 아이를 둘쳐 업으며 남편을 따라 유격대로 가겠다고 떼를 썼던것입니다. 박성철이 제 정신이 있는가, 아이를 가진 녀자가 가긴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가 하고 막아 나서자 안해는 그의 허리띠를 꽉 거머잡고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 타일러서는 이가 들것 같지 않고 콱 떠밀쳐 버리고 달아나자니 울음을 터뜨릴것 같았습니다. 울음만 터뜨리는 날에는 온 동네가 그 사연을 다 알게 되고 적의 귀에도 들어 가 유격대가족이라고 식구들이 결딴나게 될 판이였습니다.

박성철이 어쩔바를 몰라 쩔쩔매고 있을 때 어머니가 며느리를 타일렀습니다. 네가 지금 처신을 잘못하면 남편을 죽일수 있다, 저 사람이 약속된 시간까지 부대를 따라서지 못하면 도망군이 될것인즉 그건 역적이 되는 길이다, 아이애비가 그렇게 돼도 좋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안해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허리띠만은 놓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 보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사내가 한번 큰 일을 하자고 집을 나섰으면 그만이지 넌 왜 이 밤중에 뛰여 들어 소동이냐,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독립이 되기전에 또 오면 네 정갱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서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던지 박성철은 그 길로 집을 뛰쳐 나왔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볼 때에야 그 어머니나 안해가 림수산에게 비길수 있는 사람들입니까.그러나 혁명에 대한 관점이나 립장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림수산에 비할수 없는 선생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서라도 유격투쟁을 하겠다는 안해의 지향도 아름답지만 나라를 독립하기전에 다시 집에 나타나면 아들의 정갱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엄포를 놓는 어머니의 뜻은 또 얼마나 고결하고 숭고한것입니까.

김익현이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받던 날 나는 그가 어린 나이에 지양개등판에 찾아 와 유격대에 받아 달라고 간청하던 일이며 지갑룡의 회유를 뿌리치고 사령부로 찾아 오다가 굶어 죽게 되자 나무에 숯덩어리로 글을 써 놓고 덤불속에 들어 가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던 일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김익현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기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나 후대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 지게 되였습니다.

김익현도 훌륭한 대원이지만 그와 김봉록을 사령부에까지 부축해 가지고 온 전문섭은 또 얼마나 강인하고 동지적의리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실신상태에 있는 두 전우를 사령부에까지 업어 온 그를 보니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우들의 몰골이 너무나 처참해서 눈물을 참지 못한것입니다.

혁명적신념이 박약하고 의리와 량심이 없는 사람같으면 배고픈 고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동지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을것입니다. 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있는가, 울타리가 있는가, 감시막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을 던지고 내려 가서 문서장에 손도장만 찍으면 밥도 배불리 먹을수 있고 뜨뜻한 온돌방에서 마음껏 잘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섭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두 전우를 번갈아 업으며 사령부로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따르며 충실하게 혁명을 해 왔습니다.

…신념이 강해야 자기도 지키고 사회주의도 고수할수 있습니다.

백날을 굶어도 살아 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단 하루의 떳떳한 삶을 위해 천날 고생도 달게 받아 들이는 사람, 절해고도에 홀로 떨어 져 이름 모를 숲속에서 한점의 티끌로 사라져도 조직이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줄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자기를 키워 준 지도자와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폭도 하고 교수대에도 서슴없이 올라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만이 언제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교양,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교양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통일의 밝은 앞날 함께 마중합시다

(이 해의 독자란을 펼치고)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커다란 흥분과 깊은 자욱을 남긴 뜻 깊은 이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해에 대한 깊은 추억이 되살아 나고 다가올 앞날에 대한 환희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이 시각 잡지 《금수강산》 편집부는 이 해에도 잡지의 편집과 발행을 위해 크나큰 관심과 기대, 아낌 없는 방조와 성의를 표시해 준 독자여러분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 보느라면 올해는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들이 수없이 펼쳐 진 의의 깊은 해였습니다.

4.8북남합의서채택과 력사적인 평양상봉, 북남공동선언채택, 수차에 걸친 북남상급회담, 북과 남에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 비전향장기수 63명의 북반부에로의 송환…

온 세계를 진감한 격동적인 사변들에 접하여 중국과 로씨야, 미국과 일본, 카나다와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잡지애독자들이 더없이 기뻐하며 축전과 축하편지, 시와 노래, 글원고들을 투고하여 왔습니다.

올해 우리 잡지에는 타향만리에서 고국을 그리는 동포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모진 어려움을 헤치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소식과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서 일어나는 사변들,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풍습을 소개하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글 및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편집된 글과 사진들은 해외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족성을 간직하고 참된 애국으로 삶을 빛내이려는 동포여러분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달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과 고무를 주며 찾아 오는 편지들과 원고들에서 우리는 잡지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뜨거운 애착심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 많고많은 편지들중에서 중국 길림시에 살고 있는 황진생동포가 보내온 편지의 한구절이 떠오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잡지 《금수강산》을 받아 볼 때마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조국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조국의 모습을 눈에 보는듯 합니다. 잡지 《금수강산》은 우리들이 장군님의 따뜻한 배려로 그리운 조국방문기간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모습과 감격에 넘쳐 쓴 감상까지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외에서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 하며 장군님께 충성 다하기 위해 애 쓰는 사실들과 해외에서 진행되는 행사까지 영화화면처럼 보여 주는 《금수강산》은 우리 해외동포들이 제일 반갑게 받아 보는 잡지입니다.

학습날이면 우리는 《금수강산》 잡지를 먼저 보겠다고 싱갱이질을 한답니다.…

독자여러분의 이런 진정에 넘친 편지를 받을 때면 취재길에 쌓였던 피로도 절로 가시여 지고 독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더 좋은 잡지를 만들어 갈 결심이 더욱 굳어지군 합니다.

이미 잡지의 지면을 통해 친숙해 진 중국 단동시의 리성근동포와 봉성시의 리춘경동포, 우즈베끼스딴의 박경남동포, 카나다 조동호동포를 비롯한 독자들의 이런 열렬한 애독열과 성원이 있기에 《금수강산》은 언제나 동포여러분의 잡지로, 영원한 길동무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것입니다.

독자여러분, 머지 않아 우리는 21세기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통일민족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될 21세기, 그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여야 하겠는지?!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의 김기옥동포가 편지에 결의한 부분을 여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에 비해 볼 때 민족은 크고 영원합니다.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리익과 그 실현을 위해서는 7천만 백의동포모두가 자기 개인의 리익을 양보하고 힘을 합쳐야 할줄로 압니다. 저자신도 미력하나마 통일위업에 있는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김기옥동포만이 아닌 독자여러분모두의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새해에 우리 잡지에는 하나된 조국에서 얼싸안고 춤 출 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여러모로 애 쓰는 각지 해외동포들의 활동모습들이 보다 많이 그리고 특색 있게 편집될것입니다. 동포들이 사는 곳곳마다에서 벌어지는 통일애국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동포들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들과 잡지에 대한 기탄 없는 조언을 더 많이 적어 보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할 충분한 준비가 되여 있습니다.

《금수강산》잡지와 더불어 우리 함께 밝아 오는 통일의 새 아침을 마중해 갑시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들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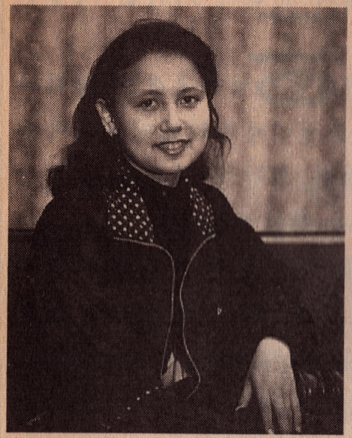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톤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톤

조국에서의 마지막하루



오늘 우리는 하루종일 무용련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해외에서 조국방문을 온 우리가 마지막날에 무용련습을 하였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거예요. 그도 그럴것이 오늘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역땅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번이라도 잠간이라도 밟아 보고 싶어 하는 조국, 더우기 조국에 대하여 아는것보다는 모르는것이 더 많은 우리들이고 보면 이 마지막날의 일정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대동강에 나가 뽀트를 타며 모란봉이랑 청류벽이랑, 주체사상탑과 인민대학습당이랑 다시한번 눈에 익혀 둘가, 아니면 옥류관에 가서 유명한 평양랭면으로 즐거운 식사시간을 마련해 볼가, 또 공원과 유원지들을 찾아 볼가, 아니면 경치 좋은 곳들을 찾아 사진도 찍고 상점과 백화점들을 다니며 부모님들과 친우들에게 줄 기념품들을 살가.…

어떻게 하면 조국에서의 마지막날을 뜻 깊게 보낼가 하고 곰곰히 생각하던 저는 문득 한가지 생각에 미치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조국에 오고 싶었던것은 무엇때문이였던가 하고 말이예요.

생각해 볼수록 조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관광이 목적은 아니였어요.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조국에 온것은 더욱 아니였어요. 하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조선민족의 우수성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낯설은 이국땅으로까지 쫓겨 오면서 당한 치욕과 피눈물나는 생활에 대해서도 알게 되였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조선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워서 저는 어릴적부터 다른 애들보다 조선말도 빨리 배웠고 12살때부터는 조선무용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조국에 온것은 조국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조선사람으로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마지막날의 일정도 그런 방향에서 정해야 가장 뜻 깊을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순희랑, 영미에게 이 심정을 말하고 래일 하루동안 새 무용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되여 오늘 우리는 국립민족예술단의 이름 있는 무용가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무용 《고향의 봄》을 배웠습니다. 피곤한줄도 힘든줄도 몰랐고 회전동작을 하다가 넘어 졌어도 아픈줄 몰랐어요. 오히려 새 힘이 계속 솟구치고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조선춤훈련을 더 많이 해서 다음번에 조국에 올 때는 보다 훌륭한 춤동작을 조국인민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즈베끼스딴공화국 따슈껜트시
최영란

력사에 처음 있는 일

마음속충격은 언제나 오래 가는 법이예요. 이번에 조국에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비전향장기수들이 서울에서 평양으로 오는것을 목격하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 받은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요.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세월, 무려 45년까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한번 가졌던 사상을 지켜 끝까지 싸우고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의 훌륭한 모습은 영원히 잊혀 질것 같지 않아요.

사회주의조국으로 당당하게 돌아 오는 그들이 얼마나 의롭고 장하였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 달려 나와 거리거리들에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겠어요. 나도 그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 보고 싶은 심정이였어요.

그들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가하여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어요. 전향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편안히 살수도 있었을 그들이 어떻게 되여 지조를 지켜 그토록 오래동안 감옥생활을 하였는가 하고 말이예요.

누가 강요해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사상이 옳다는것을 그 무엇인가를 통해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고 확신하였기에 그처럼 끝까지 고수할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고 확신한 그 무엇이란 다름아닌 조국이 광복된후의 생활일것이예요.

나이 일흔이나 여든에 이른 그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해 본것은 아마 50여년전 광복후 **김일성**장군님의 품에서였을것입니다. 지난 날 부모들과 함께 학대와 멸시만을 받던 그들이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되고 마음껏 배우며 누리는 생활이 너무나 행복에 겨워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감격의 눈물을 지었을것이예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감히 전향하겠다는 말을 그 입으로 할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 인민적인 나라를 버릴수 없었을것이예요.

리인모선생에 대한 책을 보았는데 그분도 광복후 5년 인민이 주인된 나라에서의 참된 생활이 자기의 신념으로 되였다고 하였어요.

광복후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시였어요. 사람들은 그 태양을 잃고는 살수가 없었지요.

비전향장기수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으로 돌아 오는것을 보면서 나는 조선인민의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충성심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어요.

자기의 사상을 지켜 수십년간 싸우다 60여명이 한꺼번에 자기 조국의 품에 안긴 례는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일거예요. 세계적으로 완전히 신비한 일이예요.

중국 연길시 천재련

작품들에 어린 민족의 재능



만수대창작사참관이 참 인상 깊었다. 만수대창작사는 미술작품들을 창작하는 곳이였다.

나는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수대창작사에서 내가 본 하나하나의 미술작품들은 모두가 정말 훌륭하였다.

특히 고려청자기는 볼수록 신비스럽고 우아하였다. 마치 깨여 진 자기쪼박들을 모두 모아 붙여 놓은듯 싶은 잘잘한 금무늬들은 자연적인 황홀감을 자아내고 비취색의 은은한 색갈은 맑고 푸른 하늘빛을 그대로 물 들인듯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 자기 하나를 통해서도 고상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민족적감정을 강하게 느낄수 있었다.

풍경화나 수예품들을 보면서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창작가들의 정신적품성을 엿볼수 있었다. 작품들은 하나와 같이 수려한 강산의 풍치를 보여 주고 있었다. 금강산도 있었고 칠보산도 있었다. 한눈에 삼천리를 굽어 보는듯 싶었다.

미술작품들은 귀중한 문화적, 국가적재보이다.

고국에 그처럼 훌륭한 미술작품들이 있는데 대해 긍지를 가진다. 그 미술작품들에서 조선민족의 재능을 보았다.

중국 심양시 강현주

세계의 특이한 도시들

— 세계에서 가장 오랜 수도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수도로 알려 져 있다.

디마스끄는 기원전 2500년부터 수도였다.

—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볼리비아의 수도 라빠스이다.

이 도시는 해발 3,631m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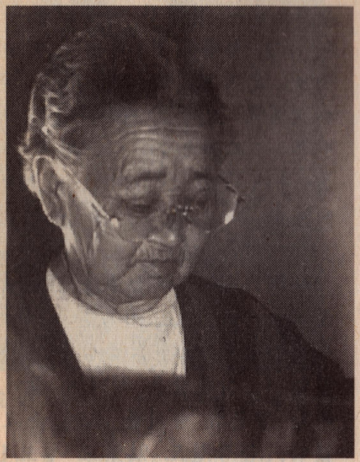
— 세계에서 해발고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

이스라엘의 사해근처에 있는 에인 보케크는 세계에서 해발고가 제일 낮은 곳에 있다.

에인 보케크는 바다수면보다 393.5m나 낮은 곳에 있다.

캐나다 T6BOA7 앨버타주 에드몬톤시 76거리 5203 리광렬 앞

너를 기다린다



그리운 아들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며늘아기랑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하와 주애도 잘 있겠지.

너의 건강은 어떠냐. 가을초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편지를 받고 몹시 걱정하였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보니 너의 병이 도지지나 않았는지…

옛날부터 병치료는 약절반, 마음절반이라 하였는데 뭐니뭐니하여도 마음을 굳게 먹고 병치료에 전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모두가 건강하여 조국건설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춘석이는 직장에서 맡은 일을 높은 수준에서 책임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신망이 대단히 높다. 뿐만아니라 그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보다 더 잘 꾸리기 위하여 봄철나무심기계절부터 시작하여 누가 보건말건 자기의 성실한 땀을 다 바치기때문에 마을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며느리도 집안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 특히 그는 나에게 정성이 지극하다. 앓을세라, 힘 들어 할세라 매사에 깊이 관심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들에서는 우리 가정을 화목한 가정, 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누이 영숙이네도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주 드나들더니 이제는 손자들까지 있다보니 발걸음이 떠진다.

나는 지금도 정정한 몸으로 터밭도 가꾸고 자식들의 뒤바라지도 해주고 있다.

얼마전에 조국이 광복된 이후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던 마을에 다녀 왔다.

그러느라니 스스럼없이 네가 조국에 와서 이 에미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던 때가 자연히 갈마들더구나.

그때 너는 해종일 풀피리를 불며 시내가로 돌아도 다니고 물고기를 잡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상했었지. 그리고 이역땅에서 주하와 주애를 키우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더듬었지…

그애들이 보고 싶다.

한번 며늘아기랑 아이들이랑 모두 함께 이 에미곁으로 오려무나.

그래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현실을 보아라.

나는 너를 때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온 가족이 상봉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주기를 바란다.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
82반 윤보실 보냄

며느리(오른쪽)와 손녀(왼쪽)



고향소식

고향땅을 밟을 때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 가는 남 다른 기쁨으로 하여 언제나 즐거운 우리의 취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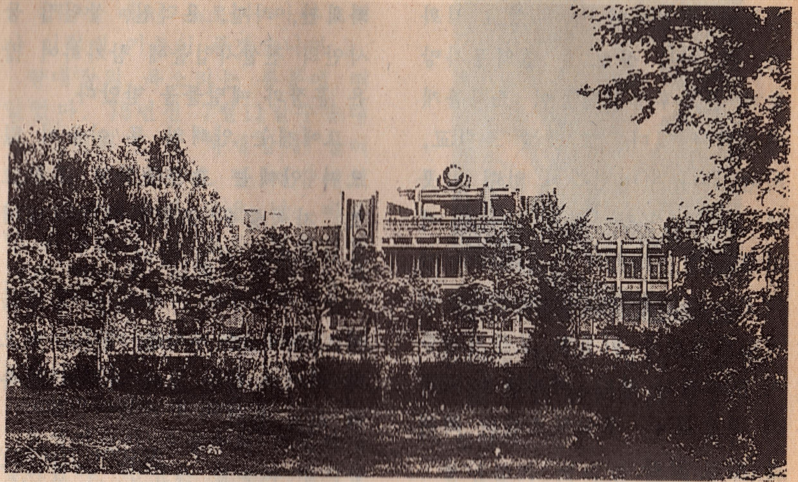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향의 소식을 읽고 또 읽었다는, 고향소식이 무척 기다려 진다는 동포들의 향수에 젖은 편지들은 도시와 농촌,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천리도 지척인듯 편답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조희진동포의 고향인 강원도 문천시(광복전에는 함경남도 문천군이였다.)를 소개하기 위하여 평양—평강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마침 렬차에는 그곳 태생인 허준보로인이 타고 있었다.

《문천이야 내가 손금보듯 잘 알지요.》 로인은 웃음 어린 어조로 자기는 그 고장의 《증견자》라고 덧붙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광복전 문천시는 령세한 반농반어업지대였다.

농사라고는 조, 수수와 같은 잡곡만을 심는 외그루농사가 지배적이였는데 수리보호대책이 세워 지지 않아 해마다 농사를 망치군 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곳 지하자원을 탐내여 가은지구에 광석밭을 개발하고 문평지구에는 락후한 제련시설을 차려 놓고 반제품으로



공원속에 자리 잡은 《은덕원》

략탈해 갔다. 여기서 로동자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각종 로동재해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은 로동자들은 수없이 많았다.

사람들은 문천땅을 떠나갔다.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남부녀대로 떠돌아 다니거나 먼 이국땅으로 흘러 갔다.

이 고장이 전변의 새 력사를 맞이한것은 조국광복이후였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 왔고 일터마다에는 건국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오늘 문천시는 금속, 기계, 화학, 건재, 일용품, 식료 등 공업을 위주로 하면서 농업과 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부문이 합리적으로 결합되여 발전하고 있다.

시에는 발브생산기지가 꾸려 져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십개의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에 의거하여 제품들을 생산하여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고장은 수산업이 발전된 지역의 하나로서 도수산물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시농촌경리는 알곡을 위주로 하면서 농산, 과수, 축산업 등이 다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허준보로인의 고향자랑은 끝없이 계속되였다.

《문천땅이 천지개벽을 했지요.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돌아 보면 더 잘 알수 있을거웨다.》

렬차에서 내린 우리는 로인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시내의 여러 곳을 돌아 보았다.

시원스레 뻗어 간 도로의 량옆으로는 높고 낮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 섰고 영화관, 도서관, 상점 등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여 있다. 그 옛날 소학교, 의원 하나 변변한것이 없던 이곳에 오늘은 공장대학을 비롯한 여러개의 전문학교와 수십개의 인민학교, 고등중학교가 일떠섰으며 시인민병원을 비롯한 보건기관들이 30여개나 된다. 주민들은 나라의 무료교육,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입고 있다.

동해기슭을 따라 경치 좋은 곳들에는 공원과 휴양소, 소년단야영소 등이 꾸려 져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마음껏 휴식을 즐기고 있다.

로씨야 하바롭쓰크시 멘델레브거리 11번지에 살고 있는 백일호동포의 삼촌인 류석주가 이곳 시인민위원회에서 과장으로 사업하고 있다.

주체51(1962)년에 로씨야에서 귀국한 그는 원산고등건설학교와 평양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였다. 건설전문가인 그는 문천시에 배치되여 온 후 지금까지 20여년간 문화회관, 려관, 은덕원, 살림집 등 시안의 건설사업들에 참가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들을 받았다.

그에게는 안해와 두 아들이 있으며 안해는 고등중학교 교원으로, 자식들은 조선인민군대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있다.

류석주과장은 자기의 넋이 깃든 이 고장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해 하고 있다.

《여기서 나의 청춘시절이 흘러갔고 나의 자식들이 나서 자랐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이 스민 이 땅, 내가 한생을 바쳐 일하고 있는 이 고장은 내 살점과도 같이 귀중한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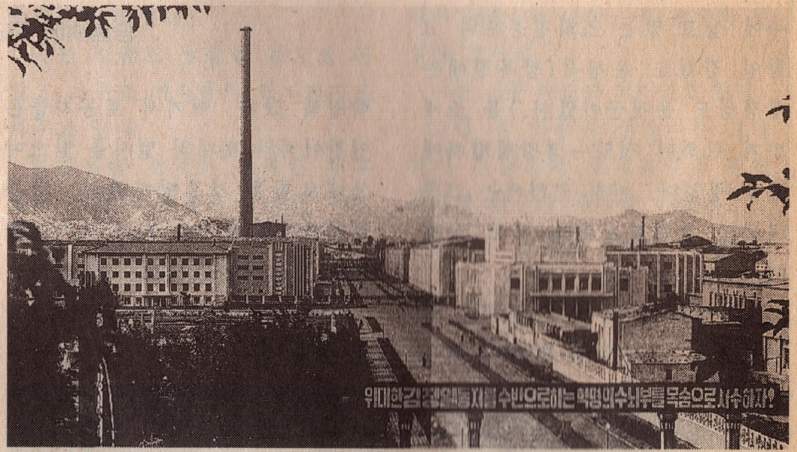
나서 자란 곳만이 고향이겠습니까?! 정말 이 땅은 나의 고향이고 요람입니다.》

예로부터 자연이나 사회의 큰 변혁을 천지개벽이라고 했거늘,

문천에서 나서 자란 동포들이 고향땅을 밟을 때 그들의 감회는 과연 어떠할것인가?!

본사기자 김대호

동포의 고향에는 큰 공장도 있다.



올림픽기발

올림픽경기대회를 상징하는 올림픽기발에는 세계 5대륙을 의미하는 5개의 륜이 그려 져 있다.

올림픽기발은 1914년 프랑스 빠리에서 있은 국제올림픽위원회창립 20돐 기념식때 내놓아 졌다.

1920년 벨지끄에서 진행된 제7차 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때에 처음으로 이 기발을 정식 올림픽기발로 게양하였다.

벨지끄올림픽위원회가 만들어 기증한 기발의 원품은 올림픽경기대회를 진행한 도시에서 4년간 보관하였다가 다음번 대회의 개막식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그것을 다시 올림픽경기대회를 주최하는 도시대표에게 인계한다.

1936년 제11차 올림픽경기대회가 있은후 베를린시에서 기발을 보관할 위임을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대회가 오래동안 중지되게 되자 이 기발의 행처를 모르게 되였다. 그후 도이췰란드국립은행의 지하창고에서 발견되여 1948년에 진행된 제14차 올림픽경기대회장에 다시 게양되게 되였다.

조국의 품에 안겨

수송대장의 하루



도인민회의 대의원이며 로력영웅인 량건삼

량건삼과 충분한 시간을 호흡한다는것은 확실히 힘 들었다. 그에게는 아침시간마저도 여유가 없었다.

《카바이드가 잘 나옵니까?》

《카바이드도 잘 나오고 나도 잘 있습니다.!》

그는 며칠전 자재를 공급 받은 기업소일군의 유쾌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래야 내 오늘 또 몇백리를 달린다우.》하고 밀짚모자를 집어 썼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딱한 인상을 지었다. 오늘은 소형발전소 자재수송의 선두차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였다. 책상에 앉아 사업조직을 하고 걸린 문제를 풀어 주는 등 총화사업을 맡아 보는 형의 기관책임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취재계획을 변경시키게 하였다. 그는 잠시 머뭇하더니 《갑시다!》하며 벌씬 웃었다. 우리의 승차를 동의하는 의미였다. 비로소 벌과 강, 산을 지나 강원도의 끝에서 끝으로 달려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이다.

차의 속도는 60㎞/시였다. 선두차 뒤로 약 30대의 차들이 꼬리를 물었다.

《땀이 배인 도로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량대장의 목소리는 흥분에 떠있었다. 15년전 7월11일수송대가 조직되여 첫 적재함에 실어낸것이 이 도로에 깐 자갈이였다. 그때로부터 궂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이 길을 달렸기에 그의 명상은 어쩔수없이 깊어지는듯 싶다.

세시간을 달리여 차는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영웅아바이가 왔다!》

건설자들이 수송대를 기쁨속에 맞이했다. 인연은 혈육과 친지들간에만 있는것이랴. 한번 만났다 헤여 져도 이들의 《상봉》은 열렬하다. 자진하여 어려운 수송을 맡아 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건설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때문이다.

순식간에 모래와 세멘트가 부리워 졌다. 누가 운전수이고 누가 건설자인지…우리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

땀을 흠뻑 흘린 후에 진행된 합동오락회는 발전소건설장을 들었다 놓았다.

청년들의 씩씩한 노래에 이어 하모니카를 들고 인상적인 밀짚모자가 나섰다. 수송대장이였다. 혁명가요련곡이 멋들어 지게 울려 퍼지더니 《재청!…》 소리가 터져 나왔다. 놀라운 연주솜씨였다. 하긴 일본에서 살 때 10살까지 하모니카를 불며 노래를 팔던 그였다.

오전타입이 끝난 다음 량대장은 강기슭에 점심식사를 펴 놓았다. 안해가 싸준 감자튀기를 막내딸또래의 청년건설자들에게 먹이지 않고서는 갈수 없다는것이다.

얼마후 자동차행렬은 또다시 달렸다.

원산시내에 들어 서니 시민들이 저마다 손을 흔들어 주는것이였다. 역시 7월11일수송대의 덕을 입지 않은 기업소가 없음을 알수 있다. 량대장은 강원도내 소로길까지도 자기들의 수송주로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탄 선두차는 갈마유치원으로 향했다. 나머지 차들은 지원용농쟁기들을 싣고 각지 협동벌로 나가게 된다.

마침 유희놀이를 하던 꼬마들이 《대의원할아버지!…》 하며 달려

운전사들에게 임무를 주는 량건삼



와 안긴다.

(그래서였구나!)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이곳은 도인민회의 대의원인 그의 사업지역이였던것이다. 그는 자신이 더 크게 설계한 미끄럼대의 자재를 깐깐히 타산했다. 그리고 유치원원장의 놀이터확장에 대한 욕망도 알게 되였다. 무거운 짐을 또 지는 순간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다. 아니 더 희열에 넘친듯 싶다.

그런 후에 차는 다시 협동벌로 향하였다. 《자동차행군》이였지만 피곤한 기색을 숨길수 없는 우리들이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무렵 량건삼은 차를 원산앞바다로 몰아 갔다. 피로는 바다물로 가셔야 한다는것이다.

우리가 출렁이는 파도에 발을 적시는것을 보더니 량대장은 다시 차를 돌리는것이였다. 그는 어디론가 또 간다. 환갑을 퍽 넘긴 그에게는 과중한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그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아침과 저녁밖에 없다.

그는 어둠이 깃들어서야 돌아왔다. 놀라운것은 그 시간에 원호물자를 싣고 녀성고사총중대에 갔다 온것이다. 하루에 서너건의 일감을 제끼고 또 물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아 하는 그다.

량건삼은 땀 배인 머리를 물속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열정으로 단 몸을 다 식힐수는 없는것이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생활의 단맛을 알수 없다는것이 그의 지론이다.

휴식을 권고하는 우리에게 량대장은 웃으며 말했다.

《이게 휴식이지요. 40년전에 꿈을 안고 귀국의 첫 자욱을 찍은 곳도 여기였고 로력영웅칭호를 받고 혈육들을 만나러 일본에 갈 때도 이 항구를 떠나서인지 저녁이면 자연히 바다가로 발걸음이 돌려 지군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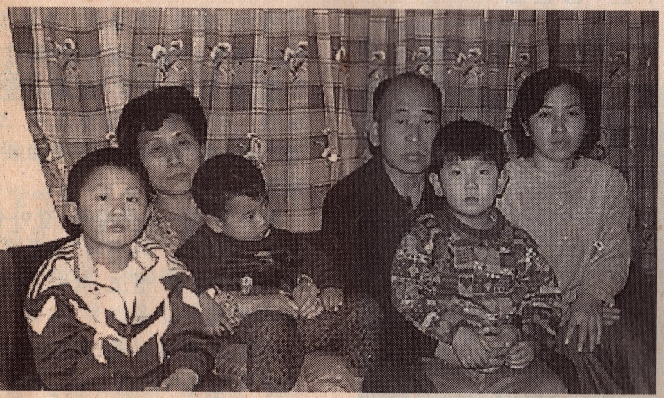
사연 많은 그 바다물에 발을 적시고 그는 땀 흘린 하루를 돌이켜본다. 하루는 저녁에 평가되고 인생은 말년에 평가되듯이 량대장의 헌신적인 하루하루가 모여 참된 인생의 40년을 이룬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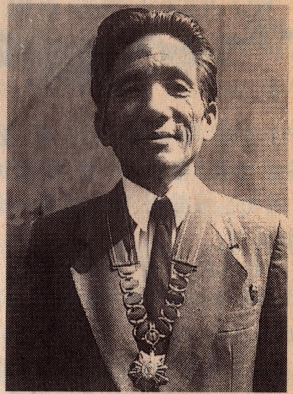
그는 지금도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살고 싶어 한다. 그렇게 조급히 달리지 않고는, 작은 어깨이건만 일군들이 큰 짐을 지지 않고서는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때문이다.

그의 하루에 대한 개념에는 바치는 분과 초밖에 없다.

본사기자 리경희

가족들과 함께





박재술

지난 10월 초 어느 날이였다. 대동강기슭에 자리 잡은 문수거리 12층 아빠트의 한 창가에는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 있는 박재술의 집이였다. 박재술이 박사학위를 받은것을 축하해 주러 왔던 동료연구사들과 친지들이 돌아 간지도 퍼그나 되었고 축하연의 상차림이 늦어 진다느니, 싸할린에 있는 고모, 삼촌들에게는 자기가 편지로 알리겠다느니 하며 분주탕을 피우던 막내딸 순희도 이제는 꿈나라에 간듯 조용하였다.

반쯤 열린 창문으로는 싱그러운 강바람이 흘러 들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라지오에서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밤공기를 흔들며 가볍게 울리고 있었다.

…

불 밝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

평양의 밤하늘을 붉게 물 들이며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바라보는 박재술의 눈가에는 조국에서 맞고 보낸 근 40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다.…

덧쌓여 지는 행복

공부를 실컷 해보았으면 하던 소원을 자그마한 트렁크에 부풀도록 채워 가지고 박재술이 조국의 품에 안긴것은 그가 18살되던 주체50(1961)년이였다. 조국은 이름없는 한 청년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려 그의 앞가슴에 김책공업대학(지금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휘장을 달아 주었다.

달달이 차례지는 장학금과 학용품, 생활필수품, 조국에 혈육 한점 없는 그에 대한 교원들과 학급동무들의 다심한 관심속에 재술은 부모들에게 편지 쓰는 일을 자주 잊군 하였다. 여념이 없었다. 기숙사에서 교실로,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과학탐구의 7년 세월끝에 그는 최우등성적이 새겨진 대학졸업증을 받아 안게 되였고 바라던대로 수리공학연구소에 배치되였다.

몇해후 인물 환하고 마음씨 고운 대학동창생처녀와 연분을 맺어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였다. 나라에서는 청년거리의 아빠트에 집을 마련하여 주었다. 직장사람들과 이웃들은 신혼살림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세라 각별히 돌봐 주었다. 한해후에 떡돌 같은 아들이 태여났고 뒤이어 딸 둘을 보게 되였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자식들을 보는 재미에 세월 흐르는줄도 몰랐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를 거쳐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아들 철민이는 대학교원으로, 두 딸 순영이와 순희는 인쇄공장과 식료공장의 기사로 당당히 제 몫을 하고 있다. 바로 며칠전에 아들 철민이는 학사학위론문을 발표하여 오늘처럼 집안을 흥성이게 했었다.

발전소들에서 혼류타빈의 효률을 높여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술의 연구사업도 성공하였다. 수십건의 가치 있는 론문들을 써냈으며 수리부문 국제회의들에도 여러번 참가하여 론문을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수리구조물인 서해갑문설계에도 참가하였고 장진강, 부전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도 적극 기여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서해갑문완공의 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으며 장군님의 표창장과 감사도 받아 안았다. 국가에서는 그의 앞가슴에 훈장과 메달들을 주런이 달아 주었고 학사를 거쳐 오늘은 수리공학박사칭호도 안겨 주었다.

돌이켜 볼수록 조국에서의 삶은 날마다 시간마다 복우에 복이 덧쌓여 진 행복한 순간의 련속이였다. 하기에 몇해전 박재술은 친척방문차로 싸할린에 갔을 때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동생들에게 세상의 복이란 복은 모두 자기를 견주고 때를 기다려 다가오는듯 싶다고 진심을 토로했던것이다.

행복이 커갈수록 보답의 일념으로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그였다.

라지오에서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담은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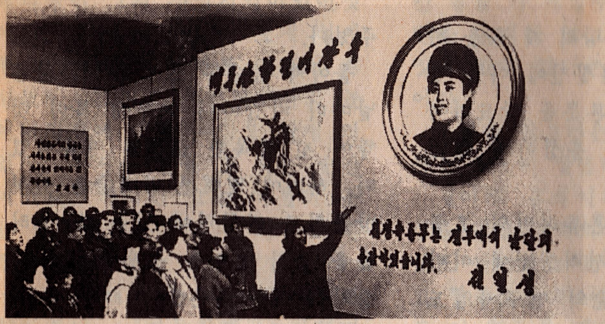
이 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커가는 내 행복의 끝은 어딘지
우리 당 품에서 시작된 행복
언제나 그 끝은 알수 없네
이 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고마운 그 품을 영원히 따르리

본사기자 하성준

첫 걸음마를 떼는 박재술과 손자



별처럼 빛나는 생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 배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친 위인의 한생은 인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난다.

한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건설, 조국통일위업에 바치시였으며 우리 민족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세상에 더 없는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안겨 주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오늘도 충신의 별로 영원한 빛을 뿌리시는 혁명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해빛 같은 밝은 영상이다.

백두산녀장군의 탄생 83돐(12월 24일)을 맞으며 우리는 지금 절절한 그리움과 깊은 감회속에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여 있는 김정숙동지께 드린 공화국영웅메달앞에 서있다.

생전에 그이께 이 금별메달을 달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하는 절절한 생각, 김정숙동지처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의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녀성영웅에 대한 무한한 경모심으로 가슴이 뜨겁게 젖어든다.

뜻 깊은 금별메달을 바라보느라니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어느 날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게 된 공청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어머님께서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던 밤 그들에게 우리도 저 별처럼 살자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만을 따르는 별이 되여 한생을 저 별들처럼 빛을 뿌리며 싸워 나가자고 하신 그날의 그 말씀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새겨 지고 있다.

별처럼 빛나게!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께서는 한생을 그렇게 빛나게 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 되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김정숙동지,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 공산주의혁명투사로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빛나는 혁명생애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님을 결사옹호보위하시였으며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뼈를 깎는 아픔도,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시련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 내며 백두밀림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신 어머님께서는 엄혹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조선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항일의 그날처럼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받드시고 새 조국건설과 혁명의 정치군사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광복후 부강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수령님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보좌해 드리신 어머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사고하고 행동하시며 인민대중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으로 교양하시고 새 조국건설에로 이끌어 주시였다.

로동자, 농민, 늙은이와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군중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보살펴 주신 어머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남녘의 애국투사들도 고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신 한없이 자애로운분이시였다.

참으로 어머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비껴있는 금별메달이다.

천만년 무궁토록 김정숙동지를 모시여 그이의 빛나는 영웅적생애를 귀감으로 삼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충성 다하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어려 있는 금별메달이다.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여 우리 혁명의 년대기를 빛내이신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간직되여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영광스러운 길우에 별처럼 찬연히 빛나고 있다.

본사기자 김희

노래의 나라

(남조선의 미래음악회 회원 김유정이 쓴 글 《노래의 나라》를 줄여서 아래에 소개한다.)

평양의 학생소년예술단과 교예단이 서울에 와서 대절찬속에 공연을 펼쳤다. 환상의 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울만큼 황홀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북음악을 다년간 연구해 온 본인에게 있어 그들의 공연은 더더욱 감명 깊었었다. 이미전부터 깊이 느껴 온바이지만 공연무대에서 울린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확인하게 된것은 이북은 참말로 《노래의 나라》라는것이다.

세계의 어지러운 흐름에도 오염을 모르고 흔들리지 않는 이북이다. 이런 이북을 떠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노래다.

평양의 어린 사절들과 선남선녀들의 희한한 공연에 곁들어 《노래의 나라》 이북에 대한 경하의 정을 여기에 적는다.

1

이북에서는 사람들의 하루가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저문다. 나는 이것을 평양의 라지오와 텔레비죤을 통해 그리고 이북을 다녀온 이들의 말을 통해 알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북의 아침거리는 학생취주악대가 장식한다. 이북의 어디서건 아침출근길에 나서면 먼저 맞아 주는것이 취주악대의 랑랑한 주악이다.

서양쟈즈의 호른이나 색스폰의 야생적인 소리와 근본 다른 금관악의 명랑하고 또랑한 아름다운 소리다. 놀라운것은 중학 1~2년생의 10대 아동들로 악대를 이룬 것이다.

소녀의 은백색지휘봉끝에서 씩씩하고 흥겨운 주악음이 쏟아 져나온다.

그 리듬이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약동하는 희열과 열정을 준다. 솟아 오르는 아침해와 더불어 이북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된다.

노래를 안고 일터로 간 사람들이기에 노래는 해종일 그들의 벗으로 되고 있다는것이다. 노래속의 일터는 어디에서나 보게 된다.

평양텔레비죤을 통해 본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장은 말그대로 불꽃이 튕기는 맹렬한 전장이다.

쇠망치와 정대, 곡괭이와 삽만을 가지고 암반앞에 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맹을 준것은 다름아닌 노래였다 한다.

건설장만이 아니다. 참삶이 창조되는 곳곳에서 희열과 랑만의 노래가 울리고 있다.

저녁은 저녁대로 노래속에 흘러간다.

이북에서는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이 텔레비죤방송의 인기프로로 꼽히고 있다. 노래경연에는 로동자, 농민, 공무원, 대학생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참가한다. 그중에서도 이채를 띠는것은 가정주부들의 노래경연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미래를 락관하는 사람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그들의 정신세계의 축도다.

참으로 별세상이다. 나는 음악의 나라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이딸리아에도 가보았지만 이런 광경은 볼수 없었다.

그렇다. 이북은 전민이 노래속에 사는 노래의 나라다.

2

노래를 들으면 인간의 내면을 알수 있다. 그것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며 민중의 마음도 읽을수 있다.

이북의 노래는 밝고 아름답고 씩씩하다. 그것은 민중의 생활에 깊이가 있고 밝음과 아름다움이 있으며 씩씩함이 있는 까닭이리라.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순간에 뒤돌아 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고

《생이란 무엇인가》, 이 이북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충격을 금치 못한다.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볼수 없는 노래이기때문이다.

이북의 노래들엔 인생의 목표와 끝이 있다. 리상과 소망과 념원이 있다. 거기엔 조국을 사랑하고 로동당을 신뢰하고 자기의 령수를 끝없이 흠모하는 숭고한 정신세계가 그려 져 있다.

그 무한한 정신세계는 아동들의 노래에서도 엿볼수 있다.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킨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꼬마들이 부른 모든 노래들에도 순결한 동심의 정신세계가 담겨 져 있다. 그래서 이북에선 나라의 미래까지도 튼튼하다고 하는것이다.

이북땅 어데서나 노래는 삶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고 값 있고 복되게 하며 사람들을 애국에 불타게 하고 고난도 맞받아 나가는 용기를 가지게 한다. 가장 뜨거운

사랑과 가장 강렬한 증오를 알게 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고결한 정신을 갖게 한다. 사랑의 봄비도 내려 주고 청춘의 꿈도 키워 준다. 한마디로 이북의 노래는 생을 아름답게 꽃 피워 주는 영양소이며 향기롭게 가꾸어 주는 활력소이다.

그래서 이북노래는 우리 이남사람들의 심장도 틀어 잡는다.

이북노래 《휘파람》, 《녀성은 꽃이라네》는 우리 이남에서도 다 아는 애창곡으로 되여 있지 않는가. 인정의 따스함과 생활의 즐거움이 넘쳐 나서 부르는 노래다.

젊은이들속에서는 이북의 《동지애의 노래》, 《조선의 별》,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노래도 큰 인기다.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동지, 그러한 동지, 동지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다.

이북에서 **김일성**주석님과 꼭 같으신 **김정일**장군님은 민중모두의 어버이이시고 뜨거운 동지이시다.

찬바람, 비바람을 다 막아 주시고 생사운명을 함께 하시는 장군님이시다.

이북노래들은 참으로 뜻이 깊고 멀리 앞을 내다보게 한다. 노래가 삶인 이북의 노래에서 나는 이북동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며 민족의 밝은 래일을 본다. 인류의 아름다운 리상과 미래를 본다.

3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에서 보았듯이 이북어린이들의 노래는 황홀하고 신비롭다. 사람들의 넋을 빼앗을 정도다. 어른들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왔던 평양교예단의 음악에서도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수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마다에 무한한 용맹과 랑만의 나래를 달아주는 교예, 그 교예의 매 종목을 경쾌하고 씩씩한 음악이 더욱 훌륭하게 장식해 주고 있는것이다.

원래 음악은 인간생활의 기쁨과 슬픔을 가락에 담아 표현한것이다. 그래서 음악에는 민중의 삶과 지향이 담겨 져 있다 한다.

이북에서는 노래가 그대로 민중의 삶과 투쟁 그 자체로 되였다.

나는 그것이 희세의 위인을 모신 덕분임을 깨달았다.

연세대의 한 동료교수는 나에게 **김정일**장군님의 저서 **《음악예술론》**을 기념으로 주면서 이 저서를 읽어 보면 세계가 한눈에 들것이라고 했다. 밤 새워 읽었었다.

저서에는 우리 시대 음악이 어떤 음악으로 되여야 하며 그것이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가 밝혀 져 있다.

그분께서는 노래가 사람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고 용맹스럽고 슬기롭게 하며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 낼수 있게 한다고 보셨다.

노래로 삶의 터전을 가꿔 주시고 투쟁의 폭풍도 불러 주시는 그분께서는 온 나라가 언제나 노래속에 흥성이도록 노래마당도 마련해 주신다. 매해 설날이면 전국의 아동들이 설명절을 즐기도록 설맞이노래마당을 펼쳐 주시고 크고작은 명절때에는 음악회와 경축노래모임으로 극장무대를 장식하게 해주신다.

이북민중이 부르는 노래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심어 주신 깊은 철학과 번뜩이는 사상이 있다.

한번만 불러도 심장이 뛰고 용맹의 나래가 돋친다. 적진에도 서슴없이 뛰여 드는 총폭탄도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높이 칭찬해 주시고 내세워 주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는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이 세상을 들었다 놓는다.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용솟게 한다. 그 노래를 들으면 무서울것이 없다는 사상이 절로 난다.

이북의 견결한 《수령결사옹위》, 《총폭탄》, 《자폭》의 정신은 노래속에 백배로 투철해 간다.

김일성주석님을 잃은 민족사의 최대국상, 여러해째 계속된 혹심한 자연피해,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 그 모든 역경을 이북민중은 노래를 부르며 이겨냈고 물리쳐 버렸다. 노래와 더불어 령도자와 민중이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노래와 더불어 그분의 두리에 뭉쳐 진 이북민중이다.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높이 들자 붉은기》, 《신심높이 가리라》…노래들은 그분과 생사운명을 함께 할 이북민중의 굳세인 각오를 실감하고도 남게 한다.

일심단결의 대가정에 울려 퍼지는 충성의 노래, 결사옹위의 노래, 그 노래로 더욱 융합된 대오는 깨뜨릴수도 허물수도 없다. 그 위력은 원자탄이나 수소탄에 비할바 없다.

이북에서 해마다 열리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했던 한 외국인은 말했다.

《조선의 음악을 보니 불 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다. 사막을 걸어 내고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려면 조선의 음악을 따라야 한다.》

옳은 말이다. 이남의 음악도 일어 서려면 이북의 음악을 따라야 한다.

시대와 력사가 위인을 만나야 빛날수 있듯이 음악도 위인을 모셔야 꽃 필수 있다.

꺼지지 않는것이 노래다. 노래로 살고 노래로 강성부흥에 가는 영원한 이북이다. 이북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노래로 이기며 흥할것이다.

제도와 우리 생활

우리는 얼마전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 62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김세명의 가정을 찾았다.

찾아 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집주인인 박영순녀성은 《우리 가정은 별로 소개할만한 일을 해놓은것이 없는데요.…》라고 하면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마침 세대주인 김세명의 생일이여서 온 집안식구는 《뜻 깊은 저녁시간》을 마련해 놓고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던중이였다.

어느 한 협주단의 피아노연주가로 있다는 둘째 딸 김명신은 정성껏 엮은 화려한 꽃다발을 곱게 받쳐 들었고 **김일성**종합대학 콤퓨터대학 학생인 아들 김석평은 정성껏 차려 놓은 음식상곁에 앉아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둘러볼수록 가정의 분위기는 행복감에 물씬 젖어 있어 방문손님인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지게 했다.

어느덧 주인공이 도착하자 이 가정의 소박한 《생일축하연》이 펼쳐 졌다. 축복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딸이 피아노를 타자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률이 은은히 울려 퍼졌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참으로 깊은 감회에 젖어 들게 하는 장면이였다.

이때 세명의 어머니가 조용히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으며 말했다.

《얼마나 좋은 세월이요. 옛적에야 이런 생활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령감두 끝내 글자 하나 읽지 못하는 문맹자로 세상을 떴수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야 나라에서 무료로 공부시켜 주지, 재능을 키워 주지, 장학금까지 주면서 대학공부를 시켜 주지.… 정말 이런 제도를 받들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네.》

무심히 스쳐 들을수 없는 그의 진정어린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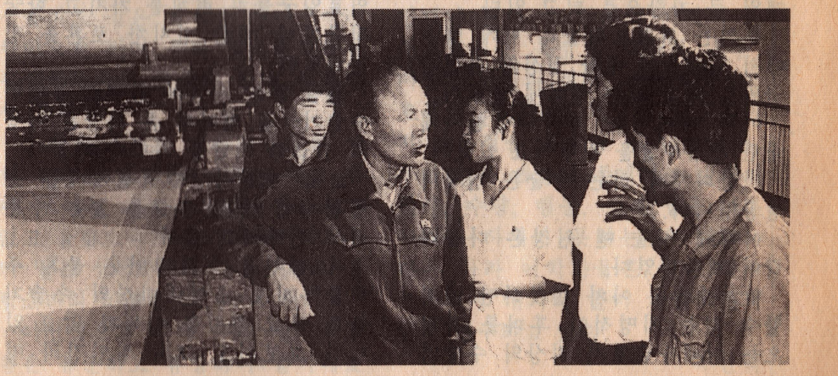
세대주인 김세명은 어머니의 말씀에 동감이라는듯 말을 이었다.

《우리 부모들이 자랄 때에는 나라 없고 무권리한 설음과 고통에 참 지지리도 못 살고 값 없는 생을 누려 왔지요.…》

김세명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빈농의 가정에서 가난에 쪼들려 힘겨웁게도 살아 왔다고 한다. 왜놈세상을 뒤집어 엎고 언제면 사람다운 삶을 누려 볼가 하는것이 일루의 희망이였다.

조국이 광복되여서야 그들의 생활에도 따뜻한 해빛이 비쳐 들었다. 인민정권의 슬하에서 김세명의 형제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며 무럭무럭 자라났으며 다섯형제중 광복전 배울수 없었던 맏이를 제외하고 4형제가 모두 줄줄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현장에서



막내로 자라난 김세명은 나날이 강화발전되여 온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현장기사로, 직장장으로, 기사장으로, 오늘은 한개의 큰 련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까지 성장하였던것이다.

《오늘의 우리 생활, 우리 제도를 마련하시고 가꾸어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우리 인민모두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그날이 되새겨 집니다.

회의에서는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하여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이의 불멸의 건국업적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던 딸 명신이가 조용히 피아노의 건반을 눌러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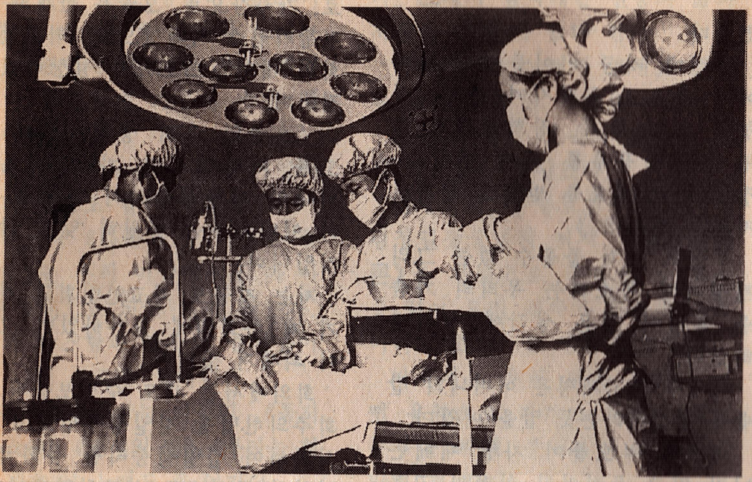
…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럼없어라
…

집을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는 피아노선률을 타고 흐르는 깊은 의미가 쟁쟁히 메아리쳐 왔다.

본사기자 채금옥

돌우에 꽃이 핀다



수술장에서

지난 9월 초, 평안남도 개천시 인민병원을 찾은 우리는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의 뜻을 되새겨 볼 기회를 가지게 되였다.

이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에 떨쳐 나 덩지가 크고 멋 들어 진 7층 병원건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워 놓았다.

그리고 종합수술실을 비롯하여 여러 과의 의료설비들과 기구들도 현대적인것으로 갖추어 놓았다.

개천시인민병원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믿음직한 의료봉사기지로 꾸려 진것도 자랑할만한 일이지만 의료일군들이 인민들에게 바치는 정성은 자랑중에 제일 큰 자랑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최창보원장과 함께 병원에서 인민들에 대한 정성의 본보기단위로 되고 있는 안과에 들렸다.

마침 과에서는 각막파렬환자에 대한 긴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안과에서 하는 수술은 언제나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을 뗀 원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안과수술은 아차 잘못하면 만회할수 없는 치명적인 후과를 가져오는 미세수술로서 최상의 수술기능을 요구한다.

그렇기때문에 수술의사는 응당 미세한 부위를 투시해 보는 밝은 눈, 침착하고 유연하며 섬세하고도 민첩한 수술솜씨, 환자의 눈이 곧 자신의 눈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안과과장 조영내동무가 병원에서 과장사업을 시작할 때만 하여도 로인들속에서 많이 생기는 백내장과 록내장환자들을 도나 중앙병원에 보내여 치료하군 하였다.

큰 병원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면 우리 병원에서도 안과수술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결심을 품은 조영내과장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의학기술문헌을 연구하였고 능력 있는 중앙의 의료일군들과 련계를 가지고 학술적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끊임 없는 사색과 탐구로 부단히 수술기능을 련마해 온 과장은 마침내 고급한 의술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개천시인민병원에서는 눈병환자에 대한 수술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병원의 의료집단은 물론 주민들까지도 조영내과장의 수술기능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그보다도 그의 참인간의 면모, 지극한 정성을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환자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받아 들이며 환자의 회복을 위해 아글타글 애 쓰는 사람, 환자치료에 걸린것이 있으면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그의 성미이고 미풍이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과장이 사람됨이 진실하고 성실하니 의사 장호영, 간호원 장경실도 휴식일이 따로 없고 밤의 안식도 없이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해 가고 있다.

우리는 각막파렬환자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조영내과장을 만났다.

무척 선량하고 지성인다운 인상을 주는 과장은 겸허한 웃음을 지으며 자기는 인간생명을 책임진 의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뿐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말이다.

조영내과장은 늘 과의 성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다같이 조국이 귀중하게 여기는 인민들, 다시말하여 친혈육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자기의 량심을 그들에게 묵묵히 바쳐 가야 한다.》

어느사이에 소식이 전해 졌는지 병원의 입원환자는 물론 시내 주민들까지 우리를 찾아 와 개천시인민병원 의료집단을 널리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 어떤 꾸밈도 가식도 없이 진심을 말하는 사람들,

이 소박한 간청은 의술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회에서는 바랄수도, 기대할수도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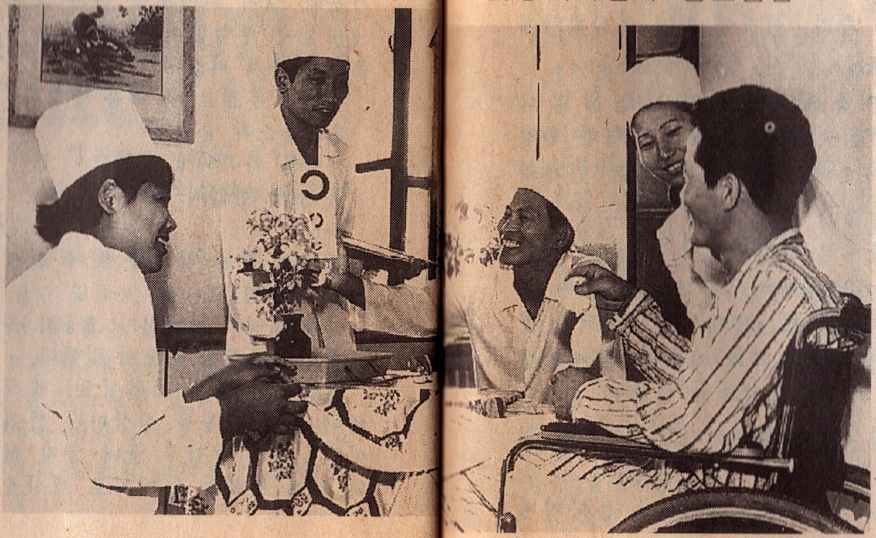
왜냐면 의사의 수고가 돈으로 계산되고 돈으로 지불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정성이란 말이 당초에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돌우에 꽃을 피우는 지극한 정성이 세상에 더없이 고결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여 온 사회를 사랑과 믿음으로 융합되게 한다.

오늘이 비록 어렵고 간고하다 하여도 서로 위해 주고 이끌어 주는 갸륵한 마음들이 화원을 이루고 있어 우리는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병원안팎도 좋고 사람도 좋은 개천시인민병원에서 우리는 지울수 없는 깊은 인상을 받으며 그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조광열



환자의 소생을 기뻐하는 담당의사들과 간호원들

우리 말의 우수성

언어는 민족을 특징 짓는 공통성의 하나이며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힘 있는 수단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자랑하고 있다.

발음이 풍부하다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 때문에 동서양의 그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마음대로 다 할수 있다. 우리 말의 구체적인 말소리단위들에서는 다른 나라 말의 말소리단위와 차이나는것이 있지만 발음으로는 다른 나라 말의 말소리단위들을 다 나타낼수 있다. 목청터침, 목청스침, 목청울림을 비롯하여 혀뒤터침, 입술과 혀앞의 터침, 막힘 등 각이한 소리를 다 낼수 있다. 이처럼 우리 말의 발음이 매우 풍부하기때문에 조선사람들은 그 어떤 외국어든지 능란하고도 정확하게 할수 있다.

류창하고 아름다운 말씨

우리 말소리가 아름다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류창하며 높고 낮음, 길고 짧음이 있고 억양이 좋기때문이다. 우리 말소리흐름은 갑자기 높아 졌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이 없다. 유순하고 잔잔하게 흐르기때문에 음정이 비교적 낮다.

말소리흐름과정이 조선민요의 선률과도 같은 형식을 띤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우리 말소리흐름은 유순하면서도 굴곡이 있고 아름답게 들린다.

우리 말소리가 아름다운것은 또한 거치른 소리나 날숨을 탁탁 막아 버리는 소리, 코맹맹이소리가 없고 울림소리가 많기때문이다. 우리 말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울림소리의 비률은 68.8%나 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우리 말소리흐름은 유순하고 류창하며 듣기에도 좋은것이다.

문법적구조가 째여 져 있다

우리 말은 문법적구조가 잘 째여 져 있다.

우선 문법적범주가 치밀화되여 있고 문법적수단들이 발달되여 있다. 존경범주와 말차림범주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우리 나라 말에서와 같이 존경범주와 말차림범주가 있는 언어는 극히 드물다. 어떤 나라 언어들은 문법적형태로서의 존경범주와 말차림범주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칭범주에 의해서 나타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조선어에는 문법적형태와 어휘표현으로써 존경과 말차림을 나타내게 되여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 오는 우리 인민들의 순결하고 고상한 도덕적품성과 례의관계가 언어에 직접적으로 반영된것이다.

조선어 문법구조의 째임은 또한 문법적형태들의 치밀성에서도 나타난다. 언어에서 문법적형태는 문법적관계의 표현수단이다. 현대 조선어에서 쓰는 토만해도 무려 300여개나 된다.

다양한 어휘와 표현

어휘는 언어의 기본단위이다.

발전된 언어일수록 어휘가 풍부하고 표현이 다종다양하다. 현재 사전에 올라 있는 어휘만해도 수십만개나 된다. 조선어의 어휘와 표현으로써는 복잡한 사상과 내용, 다양한 감정과 정서, 구체적개념으로부터 추상화된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충분히 다 나타낸다. 우리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과 현상, 수량, 행동, 관계 등을 비롯하여 나타내지 못하는것이 없다. 다른 나라 어학자들은 우리 말의 우수성에 대하여 높이 찬양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있다.

탁선덕

《충격은 평생을 가도》

지난 6월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 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사실그대로, 여러 측면에서 알게 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그이께 매혹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충격과 경탄의 목소리들을 터치였다.

《먼저 평양비행장에 도착한 우리는 공식수행원들이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환영 나온 사람들이 환호를 올리며 꽃다발을 흔들었다. 나와 일행은 무심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내가 서 있는 몇m 앞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불쑥 나타나는것이 아닌가. 나는 경악했다. 경악이란 말 말고 무슨 말로 이 순간을 표현할수 있을가? 마치 고압전류에 순간적으로 감전된듯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머리속이 하얗게 지워 지는듯 하였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마 이때의 충격은 평생을 가도 지워 지지 않을것이다.》(《자민련》 의원)

《다방면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특히 예술과 체육부문에서는 굉장한 업적을 쌓은분이시다.

평양곳곳을 돌아 보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을 살펴 보니 그분은 <인민대중속으로>를 지향하고 있었다. 많은 건물들에 인민이라는 글자가 앞선다.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인민경제대학>…항상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느낌을 받았다. 북의 주민들의 환영자세를 보니 대단히 열광적이였다. 당국의 인민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실질적인 령도력이 낳은것이라 하겠다.

만찬장에서 보니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친밀감이 참 큰분이시였다. 20명이 앉은 식탁이니 구석에 앉은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수밖에 없다. 우리 같으면 필시 한두명은 주목도 못 받고 조용히 있어야 했을것이다.

그런데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전체 참석자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잔을 권하시며 관심을 돌려주신다.》(《민주당》 상임고문)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민족적인 례의와 도덕이 매우 밝으신분》, 《통이 크고 호탕하며 모든것에 환하시고 정치지도력이 뛰여 나신분》, 《도량이 매우 넓으신분》(문화관광부 장관)

《그분은 특수한 인격을 갖고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합리성, 지도력, 식견 등을 갖추고 있었다.》(《청와대》 비서관)

《**김정일**충격, 그것은 쾌활함과 친근감의 영상이 주는 긍정적충격이다.》(관동대학 교수)

《**김정일**장군님은 지도자로 보기엔 너무도 소탈하시였다.》(상지대학교 교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좋은 인상을 느낄수 있었다.》(《참여련대》 사무국장)

《주간동아》에 발표한 글에 특징 지은 장군님의 위인상,

《첫째로 솔직하고 소탈한분》, 《둘째로 대단한 예언과 기적을 창조하는 초능력의 소유자》, 《셋째로 아는것이 많으신분》, 《넷째로 우리의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분》, 《다섯째로 거침이 없으시면서도 례의가 깍듯한분》(《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영상은 충격적으로 일신되고 남북문제만이 아닌 국제정세에도 정통한 믿음직한 지도자가 나타났다는것을 세계에 분명히 선언했다.》(잡지 《시사저널》 6월 29일호)

《50여년동안의 적대교육이 50여시간의 남북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형체를 잃어 버릴 정도로 빠르게 녹아 내리고 있다.》(《한겨레 21》 6월 29일호)

《**김정일**위원장의 승리,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일반의 평가이다.》(잡지 《주간동아》)

《의례관례와 격식을 완전히 뛰여 넘은 영접 그리고 평양시내를 뒤덮은 60만 인파의 열렬한 환영물결속에서 울려 나오며 하늘땅을 뒤흔든 만세의 환호성, 북조선력사에서 그 어떤 방문자도 이토록 뜨거운 환영을 받은적이 없었다. 거기에는 남녘의 동포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총비서의 마음이 어려 있는것으로 해석해야 할것이다. 거기에는 력사적인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김정일**총비서의 의지와 결심이 담겨 있는것으로 해석해야 할것이다.》(뉴욕에 있는 통일학연구소 소장)

본사기자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

우리 나라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을 대외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것으로 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조국의 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해인 올해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를 받았으며 우리 나라의 국제적관계는 더욱 강화되였다.

올해 초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공동사설이 발표되자 가이아나, 뻬루를 비롯한 많은 나라 정당, 단체들에서 이를 지지하여 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였다.

올해에 들어 와 세계적판도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활동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제20차대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특별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와 뻬루의 정당, 단체들은 조선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을 지지하면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에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 정당,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 국제기구들이 더 힘차게 떨쳐 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를 비롯한 각국 위원회들에서는 정기대표위원회, 년차총회 등을 진행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고 련대성활동을 적극 벌려 나갈데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여러가지 행사들도 조직할것을 결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영국 켄싱톤시에서는 토론회가, 미국 워싱톤과 뉴욕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이였다. 서명운동에는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을 비롯하여 벨지끄로동당, 인디아공산당, 국제아랍로조련맹 등 수많은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지역조직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세계평화대회 참가자들과 케페씨니시 시장을 비롯한 그리스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120여만명의 각계 각층 군중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서명하였다.

올해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도 비상히 높아 졌다. 그것은 국제적관계가 더욱 강화된데서 찾아 볼수 있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이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방문은 조로관계사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로씨야 국가수반의 첫 공식 방문이였다.

평양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대통령사이에 진행된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11개 항목으로 된 조로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조선방문에 앞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고 그 조인과 관련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였다.

뿐만아니라 유고슬라비아련방공화국 외무상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고위급인물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약하였다.

국제관계에서 올해 특기할 점의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수립한것이다.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우리 나라는 올해에 이딸리아, 필리핀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오스트랄리아와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또한 카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와 공식 국가관계를 가질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아세안지역연단에 가입하고 제7차 아세안지역연단회의에 참가한것 역시 올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중의 하나였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새해, 새 세기에도 국제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정의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것이다.

본사기자 남진범

사화

을밀대의 소나무



1592년 6월 11일,

모란봉의 어느 한 성을 지키고 있던 최칠성이라는 젊은 군사가 화살을 타러 왔다가 보통문근방에 있는 자기 집에 잠간 들렸다. 뜨락에 들어 서니 아버지 최덕부로인이 여느 날처럼 나무를 패려는지 허청칸 곁에서 도끼를 갈고 있었다.

《아버님, 아무래도 곧 피난을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형편을 보니 싸움이 성안으로 번져 질것 같습니다.》

《뭐라구? 그래 왜놈들을 성안으로 들어 서게 한단 말이냐?》

최덕부로인은 노기에 찬 눈을 부릅뜨고 아들에게 따지고 들었다.

칠성은 아버지의 노기에 움츠러드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지금 평양성을 지키는 군사와 의병이 도합 사천명도 못된다고 합니다.》

《그래 사천명이면 어떻구 사백명이면 어떻단 말이냐. 평양군사로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너는 그런 소리를 하려구 왔느냐. 에이 시러베 자식 같으니라구. 썩 사라지지 못할가!》

칠성은 환갑이 가까운 늙은 부모님들의 신변이 념려되여 왔다가 그만 아버지에게 된욕을 먹고 덴겁해서 달아나고야 말았다.

최덕부로인은 평양성에 왜놈들이 들어 올수 있다는 말에 속이 뒤집히는듯 했다.

왜놈들의 발에 평양성이 밟히우게 되다니… 진정 피가 꺼꾸로 흐르고 가슴이 터질 지경이였다. 마침내 최덕부로인은 동갑인 박로인을 찾아 갔다. 최덕부로인의 말을 듣고난 박로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자넨 아들에게 된욕만을 안길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부터 된욕을 먹어야 할가부네.》

《무슨 소리인가?》

《성안의 형편이 그렇게 위급해지는것도 모르고 북문가에 못 박혀 있었으니 어디 남을 시비할 체면이 됐나. 어서 성곽으로 나가보세.》

평상시에는 바깥출입도 변변히 하지 못하던 로쇠한 박로인이 한손에 지팽이를 짚고 한손에 도끼를 찾아 들고 앞장서 걸었다.

그들이 언덕에 올라 모란봉쪽을 보니 벌써 모란봉골안에는 달려나온 성안의 백성들로 새하얗게 뒤덮여 붐비고 있었다. 곳곳에 가마를 걸어 놓고 불을 피우고 동이를 이고 오가는 녀인들이 보이는가 하면 군사들과 함께 돌을 안고 성곽으로 오르내리는 늙은이와 아이들도 보이였다.

최덕부로인이 입을 열었다.

《이거 우리가 늦었네그려.》

《걸음을 다그치세.》

그들은 급히 언덕을 내려 와 모란봉의 성곽으로 치달아 올랐다.

《로인님들은 어데로 가십니까?》

그들 앞으로 내려 오던 한 장수가 물었다.

장수인즉 성곽의 싸움준비를 지휘하며 돌아 보던 고언백이였다.

《우리도…싸우러 나왔소이다.》

《우리 손에 창이나 활을 쥐여 주소이다.》

두 로인은 차오르는 숨을 몰아 쉬면서 청을 하였다. 고언백은 로인들의 아래우를 훑어 보고는 허거프게 웃었다. 지팽이를 짚고 숨이 차 헐떡이는 몸으로 싸우러 나섰다니 억이 막혔던 모양이였다.

《로인님들, 어떻게 그 몸으로 싸우신단 말입니까?》

《우리 몸이 어쨌단 말이시우.》

박로인은 조금도 수그러 들지 않았다.

《로인님들이 화살을 날리기전에 놈들의 탄환이 날아 올겝니다.》

《내 이젠 다 산 몸이니 탄환에 맞은들 무슨 한이 있겠나이까. 그렇게 죽어서 이 한몸으로 왜놈들의 탄환 한발이라도 빼앗는셈이 아니겠소이까.》

《한몸이 죽어서 탄알 한발을 빼았는다구요?》

마음이 뜨거워 난 고언백은 군사들을 시켜 로인들을 마을로 모셔 내려 가게 하였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돌아 오다가 다리맥이 풀리여 풀숲에 주저앉아 쉬였다.

박로인은 소나무가 울창한 모란봉을 보며 한탄조로 말하였다.

《저 빽빽한 수림이 그대로가 우리 군사라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최덕부로인이 갑자기 박로인의 무릎을 쳤다.

《자네 이자 무슨 말을 했나?》

《무슨 말을 하긴 저 나무들이 다 우리 군사라면 좋겠다구 했지.》

《자네 오늘은 어떻게 신통한 소리만 하는구만.》

《신통한 소리라니 무슨 소리인가.》

《됐네. 우리가 할 일이 생겼네그려.》

《무슨 일인데.》

《이보게, 자네는 아까 놈들의 탄환에 맞으면 놈들에게서 그만한 탄환을 빼앗는 셈이라고 했었지. 그리구 저 나무들이 군사로 되였으면 좋겠다구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 생각엔 저 소나무가지들에다가 허수아비처럼 옷을 입혀서 놈들로 하여금 우리 군사로 보이게 하자는 생각이네.》

《옳지, 그러면 놈들이 정말 군사로 알고 마구 총을 쏠테니 빼앗는 탄환도 여간 많지 않겠구만.》

《그뿐이겠나. 적은 군사라고 놈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할수도 있지 않는가.》

《정말 신통한 생각인걸.》

《어서 장수한테 찾아 가세나.》

로인들의 의견을 듣고 난 고언백은 무릎을 치며 환성을 터치였다.

《군사들이 적어서 빈자리가 많아 근심하고 있었는데 참 묘한 생각을 하시였습니다.》

《군사가 적다구 놈들한테 먹히울 걱정부터 하기 보다 군사가 적어두 반드시 이겨야 한다구 생각한다면야 무슨 생각인들 못하겠소이까.》

고언백은 즉석에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안에 내려가 옷가지들을 걷어 오게 하였다.

그리고 모란봉 을밀대의 넓은 경사지의 소나무가지들에 옷을 입혀 군사들이 지켜 선것처럼 만들게 하였다. 게다가 최덕부로인이 또한 기발한 생각을 덧붙이였다. 그것은 칡넌출로 허수아비들을 드문드문 련결해 놓고 그 한줄을 잡아 당기니 그때마다 흔들리는 허수아비들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군사들처럼 보이였다. 드디여 새날인 6월 12일 아침이 되였다.

왜놈들은 을밀대기슭에 갑자기 보지 못했던 수백명의 《군사》들이 밀집하여 지켜 선것을 보자 급히 맞은 편으로 미친듯이 달려 와 총과 활을 마구 쏘아 댔다.

왜놈들은 수백명씩 교대로 련이틀동안이나 쏘아 댔다. 그렇게 되니 을밀대의 소나무들은 어느 한대도 성한것이 없이 가지가 부러지고 껍질이 벗겨 지게 되였으며 날아 와 떨어 진 화살들은 까치둥지를 헤쳐 놓은듯이 수북이 쌓이게 되였다.

이렇게 을밀대의 소나무들은 원쑤놈들의 탄환과 화살을 반나마 빼앗아 버렸다. 왜놈들은 힘이 진할대로 진해 졌다.

사흘이 지난 14일 낮이였다.

을밀대기슭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허수아비를 동여 맨 줄을 당기고 있던 최덕부로인은 놈들의 탄환에 한다리가 상하게 되고 박로인은 한팔이 상하게 되였다. 고언백을 비롯한 군사들이 로인들에게 마을에 내려 가 상처를 치료하라고 권고했으나 그들은 피 흐르는 다리와 팔을 붙안고 끝내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고언백은 칠성이를 시켜 로인들을 마을로 모셔 가게 하였다.

《아버님들, 이젠 그만 싸우시고 이 줄을 저희들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아버님들의 상처에서 배여 나오는 피를 보고 더는 참을수 없소이다.》

《너는 내 상처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만 우리는 저 소나무들의 가지가 꺾이우고 껍질이 찢기운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파 자리를 뜰수 없구나. 저 상처를 그대로 두고서야 어찌 내 상처부터 치료하겠다고 하겠느냐.》

칠성은 감격에 목이 메여 말했다.

《아버님, 왜놈들을 몰아 낸 뒤에 우리들이 저 소나무들을 잘 가꾸겠사와요.》

《아무렴, 그래야지. 우리 소나무들은 정말 평양의 소나무답게 잘 싸웠다.》

왜놈들은 평양성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끝내 쫓겨 가고야 말았다. 그후 칠성은 마을청년들과 함께 봄이면 꼭꼭 을밀대에 올라와 소나무들을 정성껏 가꾸어 주면서 이렇게 되뇌이군 하였다.

《왜놈들과 잘 싸운 소나무들아, 푸르싱싱 잘 자라거라. 평양성의 자랑인 을밀대의 소나무야.》

이때부터 을밀대의 소나무는 왜놈들과 싸워 이긴 소나무로 더욱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였다.

활성화되고 있는 인민경제

우리 인민들은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미더운 청년건설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청년영웅도로를 건설하였다. 청년영웅도로가 건설됨으로써 평양은 항구를 낀 세계적인 도시로 전변되였으며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문명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였다. 청년건설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기계화수단과 연료도 부족하고 세멘트와 강재, 목재, 지어 식량까지도 부족한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100여리의 평양—남포사이의 고속도로를 웅장하게 건설하였다.

나라에서는 우리 청년건설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도로를 《청년영웅도로》로 부르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인 전기석탄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안변청년발전소 제1계단공사를 완공하는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당창건 55돐을 맞으면서 제2계단공사를 끝냄으로써 안변청년발전소를 우리 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태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경비대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송원, 태천언제확장공사와 태천5호발전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나라의 전력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아니라 함경북도 어랑1호청년발전소, 성천강발전소들, 봉화화학공장화력발전소 등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완공되였다.

금년에 평안북도 농촌들에서 토지가 정리되여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다.

100리 운전벌과 박천벌로부터 룡천벌에 이르는 서해연선 농장벌은 물론 녕변의 관하벌, 태천의 한드레벌로부터 의주의 홍남벌에 이르는 중간 및 산간지대농장벌 그 어디나 대 평원을 방불케 하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대지가 펼쳐 졌다. 평안북도에 이어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도 토지정리가 한창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자강도인민들은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강계—랑림좁은철길전기화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고 인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금년에 축산과 양어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남도에서는 신원군에 국영계남농장을 일떠세움으로써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마련하였다.

대홍단군종합농장 백산분장에서 돼지공장건설이 완공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일떠세웠다. 이 공장은 새끼낳이와 비육에 이르기까지 돼지기르기에 필요한 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자랑할만한 또하나의 창조물이다. 공장에는 감자농사에 필요한 물거름생산을 위한 설비들도 훌륭하게 갖추어 져 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방마다 특성에 알맞는 양어장을 꾸리고 메기, 붕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기르고 있다.

얼마전에 나라에서는 현대적인 메기공장을 건설하였다. 연건평 7천 600여m^2인 메기공장에는 최신설비들로 장비된 사료가공실, 알깨우기장, 원형살찌우기못, 양어못, 동물질먹이서식장을 비롯한 양어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져 있다.

과학화, 집약화되여 있는 메기공장에서는 메기, 뱀장어, 붕어를 비롯한 맛 있고 영양가 높은 물고기들을 공업적으로 다량생산하고 있다.

금년에 주목할만한 성과의 하나는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받들고 투쟁한 결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일련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식의 과학연구성과로 21세기의 현대적인 공업창설에 이바지할 결심을 안은 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유연생산세포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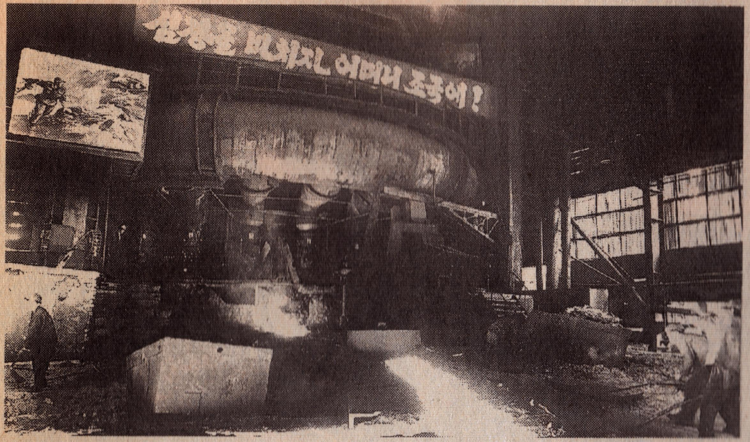
얼마전 이곳 과학자들은 유연생산세포 총 련동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자화처리기술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금년에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한 우리의 경제는 새 세기를 맞으며 보다 더 높이 뛰여 오를것이다.

본사기자 윤대중

북방의 새 모습



철증산투쟁을 힘 있게 벌린다.(김책제철련합기업소)

지난 8월 1일과 2일 량일간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경북도의 공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함경북도내 로동계급은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에서 하신 말씀을 강성대국건설의 지침으로 받아 안고 그 관철에로 떨쳐 나섰다.

북방의 대야금 기지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최근년간 철생산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놓은데 이어 생산을 끊임없이 높이여 왔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것과 함께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고 있다.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고 급격히 늘이자면 정광을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잘하여 채굴, 운반, 선광에 이르기까지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다량채굴, 다량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통이 크게 내밀고 있다.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을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는 기술개건을 다그치고 소결계통과 해탄계통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도 힘차게 벌어 지고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신심에 넘쳐 오늘은 물론 보다 위력한 야금기지로 위용을 떨칠 래일을 바라보며 비약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높은 목표, 빛나는 실천으로

3월17일발전소는 우리 나라의 손 꼽히는 대규모수력발전소중의 하나이다.

도처에 언제를 막고 물몰이를 하여 모은 물로 생산한 이 발전소의 전기는 함경북도의 인민경제발전과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

이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물조절을 잘하여 한방울의 물이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나가고 있다.

함경북도에서는 수성천의 물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수 있게 계통도를 만들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대규모의 광덕언제를 쌓고 거기에서 부령발전소로 가는 길에 오봉, 마양지구에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한방울의 물도 거저 흘러가지 못하게 하였다. 부령1,2,3호발전소들을 돌린 물은 사시절 흐르는 수성천의 물과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형제1호, 2호, 3호, 금강1호, 2호, 3호, 4호, 5호발전소들과 김철발전소, 직하발전소 등 10개의 발전소들이 건설되였다.

도에서는 여기에 10개의 발전소를 더 건설할것을 계획하고 이미 5개의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들은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큰 보탬을 주고 청진시내 3만여세대 살림집들의 전기난방화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였다.

북방에 솟아 난 소금밭

함경북도에 건설되고 있는 제염소는 어랑군 바다가에 자리 잡고 있다.

수백정보의 대규모소금밭은 평

균 5.5정보짜리 염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대는 해비침률이 높고 바람이 잘 통한다.

앞바다물은 다른데보다 염도가 더 높다. 그리하여 한해에 수만t의 소금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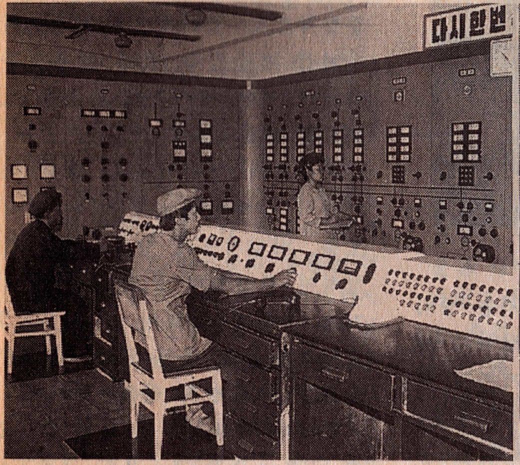
수백정보의 소금밭은 모래땅을 개간하여 건설하였으며 90여정보의 소금밭은 산등성이를 깎아 계단식으로 건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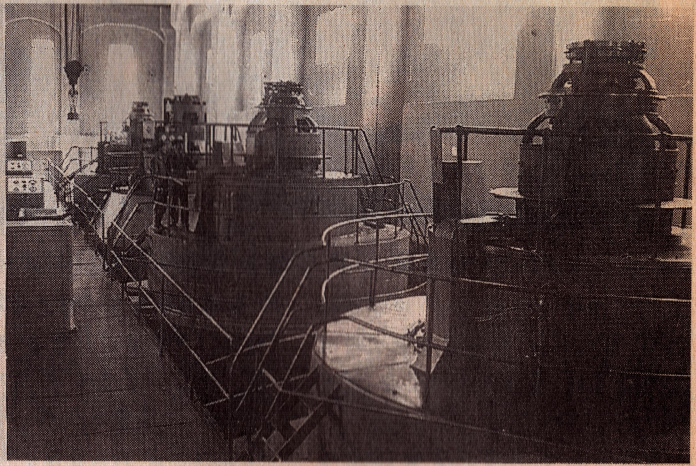
산등성이들의 생김새를 따라 가면서 건설한 계단식소금밭은 건설속도도 빠르고 품도 적게 든다.

급수와 배수문제도 쉽게 해결된다. 2단양수기로 물길의 물을 퍼서 계단식으로 물을 넣어 주어 소금을 생산하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시작된 소금밭에서 햇소금이 생산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관수송분사업소





㉶ ㉵ ㉿ ㉰

조선속담

△ 제 속 흐린게 남 보고 집 봐 달라고 말 못한다.

량심이 흐리고 검은 속심을 가진자는 남도 저 같은 줄 알고 믿지 못함을 비겨 이르는 말.

△ 뜻이 있고 벗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사람에게 있어서 뜻과 벗과 의지가 중요하며 그것만 있으면 그 어떤 일에서나 외롭지 않다는것을 이르는 말.

△ 집 태우고 못 줏기.

큰 손해를 보고 조그마한 리익에 급급하는 가련한 꼴을 비겨 이르는 말.

△ 걱정이 반찬이면 상다리 부러진다.

공연히 쓸데 없는 걱정을 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 동아속 썩는것은 밭임자도 모른다.

남이 혼자 속으로만 하고 있는 걱정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도 알기 어렵다는것을 이르는 말.

△ 노래기 회쳐 먹겠다.

노린내가 몹시 나는 노래기를 회쳐 먹겠다는 뜻으로 비위살이 매우 좋은 사람을 조소하여 이르는 말.

△ 울바자가 헐면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자기 약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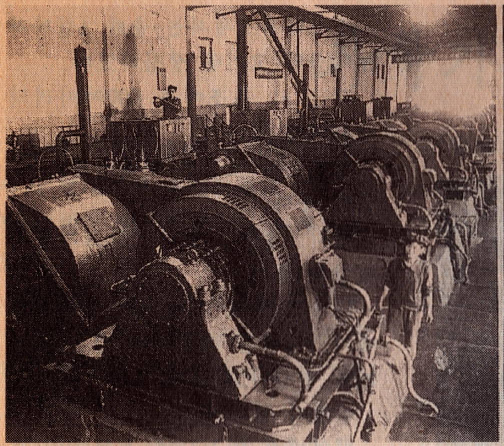
△ 자랑쟁이에게 흉집이 더 많다.

제 허물도 모르고 제 자랑 잘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발이 맏아들보다 낫다.

제일 믿음성 있는 맏아들보다도 자기자신을 믿는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참고: ①발이 사촌보다 낫다. ②발이 효자보다 낫다. ③발이 이붓자식보다 낫다.





전력생산을 정상화한다.

발전소건설

전력공업에서 중소형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각지의 발전소건설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올해에 들어 와 착공한 340여개의 발전소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 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발전소를 완공한데 이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강도에서는 만포시의 연하발전소, 화평군의 장백군민발전소, 장강군과 성강군의 장강4호발전소 등 도적으로 수만KW의 능력을 가진 50여개의 발전소건설이 통이 크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건설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건설속도를 높임으로써 이미 희천시 청상발전소, 우시군 하창발전소, 고풍군 고풍1호발전소 등 9개의 발전소를 새로 완공하여 전기생산을 시작하였다.

함경남북도에서 120여개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 있게 내밀고 있다. 수성천과 성천강, 금진강, 남대천을 비롯한 크고작은 강하천들에 덩지 큰 발전소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청진, 어랑, 함흥, 신포, 영광, 신흥 등의 근로자들은 물길굴뚫기 등 어렵고 힘든 공사를 앞세우면서 여러가지 발전설비제작을 동시에 내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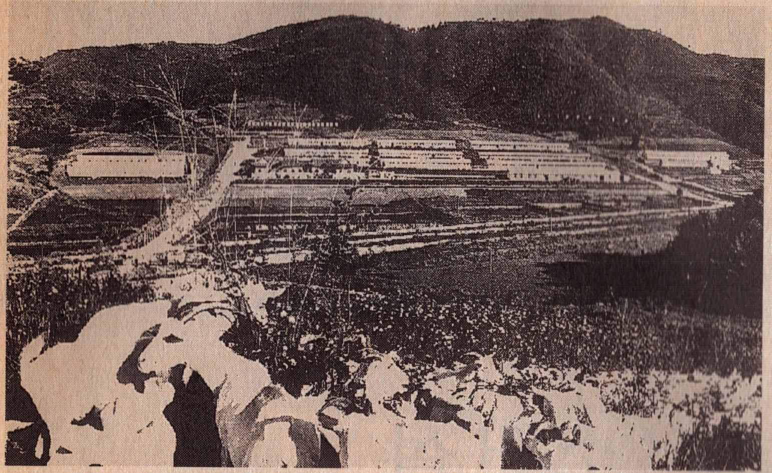
평안남도에서는 비류강을 따라 수십개의 발전소들을 계단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평안북도에서는 106개의 발전소건설대상들을 착공하고 80여개 대상의 발전소들을 완공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안변청년2호발전소, 평양시에서는 삼동발전소, 상원군민발전소를, 혜산시와 운흥군에서는 운총강3호, 6호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을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발전소건설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옳게 세우고 시공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건설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로력에 의하여 많은 발전소들이 련이어 조업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필요한 전력수요를 해결한 마을이 500여개에 이르렀다.

대홍단군, 성간군, 청진시, 신흥군들의 적지 않은 리와 마을들에서는 국가의 전기를 쓰지 않고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조명은 물론 전기난방을 보장하고 전기로 밥을 지으며 문화정서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덕성군의 락원리와 삼기리, 고원군과 영광군의 읍지구, 경성군 상온포리를 비롯하여 각지의 시, 군들에서도 중소형발전소의 덕을 보고 있는 마을들이 수많이 생겨 나고 있다.

본사기자 윤대중

전망이 좋다



남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의 일부

평안북도 구성시 남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야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축산작업반을 찾는 사람들은 현대적으로 건설된 축사며 집짐승들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농장 축산작업반은 다른 협동농장 축산작업반들보다 규모가 크고 집짐승종류에서나 그 마리수에 있어서도 많은것이 이채를 띠고 있다.

이곳 축산작업반에서는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축산에 큰 힘을 넣었다. 축산기지에는 염소와 소, 게사니와 오리, 토끼 등 풀먹는집짐승들이 욱실거린다. 이와 함께 돼지, 닭도 많이 기르고 있으며 메기못을 비롯한 양어장들에는 잉어를 비롯하여 붕어, 기념어 등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다.

또한 방목지에는 집짐승들을 순환식으로 방목을 할수 있는 180정보의 자연풀판과 8정보의 인공풀판이 있다.

축산작업반의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고기를 보다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종축과 먹이해결, 사양관리를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

염소, 소, 게사니 분조원들이 순환식 방목을 잘하고 있다.

그들은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순환식방목을 잘하여 한해사이에 염소마리수가 부쩍 늘어 나 분조마다 200마리를 훨씬 넘기였다.

매일 젖을 짜서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고도 남아 다른 곳에 많은 량을 보내고 있다.

게사니분조에서는 올해 4월까지 1t이상의 고기를 생산하였다.

지금 이 분조에는 600여마리의 게사니가 있다.

소분조의 소들의 비육상태도 대단히 좋다.

돼지, 토끼, 오리, 닭고기생산 전망은 좋다.

11개의 못을 가진 양어장에서도 메기, 잉어를 비롯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작업반에 있는 3개 동의 버섯생산기지에서는 1년내내 버섯을 키워 내고 있다.

태양열온실이 또한 크게 은을 내고 있다.

참으로 남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은 《종합목장》을 방불케 하는 축산작업반으로서 전망이 대단히 좋다.

오리떼 흐른다.



과학기술이 중시된다

올해 과학기술이 중시되여 21세기 현대적인 공업창설에 이바지할 일련의 연구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유연생산세포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자동창고, 로보트, 무인운반차, 무인조종선반 등으로 구성된 유연생산세포는 창고에서 소재를 내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재가 운반되고 완성된 가공품이 창고에 보관되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인자동화가 실현된 생산공정이다.

얼마전 이곳 과학자들은 이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과학원 전자재료연구소에서는 자체로 개발한 자화처리기술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이미 여러 중요공장들에 도입되여 은을 내고 있다.

적당한 조건에서 물질이 자화처리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자화처리된 공구는 수명이 몇배로 늘어 난다. 자화처리할수 있는 물질은 콩크리트, 물, 농작물, 식료품 등으로서 그 령역이 매우 넓다.

이 연구소의 청년과학자들은 화합물반도체결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레이자반도체 초고주파소자를 만들어 낼수 있는 박편제작연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원 수학연구소와 물리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기초과학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비선형계의 최량조종계산법을 밝혀 낸것을 비롯하여 수학의 기초리론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여러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었다.

비선형계의 최량조종문제는 수학의 여러 분야의 지식이 종합적으로 리용될뿐아니라 현대수학의 최신성과들을 적극 활용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풀수 있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였다. 여러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적과정을 최량화하여 조종할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그 수법을 확립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연구가 아니였다.

하지만 연구집단은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 꾸준하고도 진지한 사색, 열정적인 탐구로 미지의 수학세계를 파헤쳐 나가 끝내 연구목표를 달성하게 되였다.

연구집단은 리론적결과들을 금속공업, 자원개발분야 등에 실천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힘 있게 벌려 나가고 있다.

또한 이곳 과학자들은 복잡한 물리적과정을 해명할수 있는 비선형편미분방정식 풀이법을 새롭게 확립하여 금속공업과 내화물공업의 첨단기술공정들을 성과적으로 세울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다.

물리학연구소에서는 강한 비선형성을 가진 미분방정식의 풀이와 관련한 연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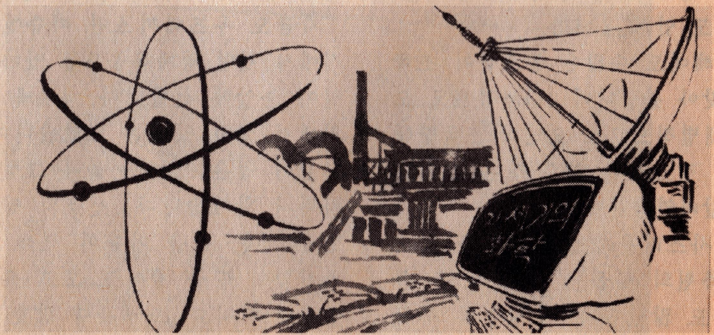
그리고 기계제작공업에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될 새로운 금속산화물사기재료개발에 관한 연구를 내밀고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탄소분말속심에 의한 착암기정대생산기술》을 비롯하여 새로운 발파법의 개발, 채탄설비와 장비의 개선, 수송과 운반능력을 높이는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는 《전기불꽃선에 의한 새로운 강재타격절단법》을 연구완성하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 나라가 과학기술을 중시하여 마련되고 있는 세계적수준의 연구성과들은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부흥의 휘황한 현실을 안아 오고야 말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해 주고 있다.

본사기자 조광열



마음의 한끝을 조국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세계와 우리 조국의 력사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긴 이 세기, 20세기를 바래우는 마지막시점에서 새 세기, 새해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고 흘러 보낸 이 해의 날과 달들을 돌아 보느라니 참 감회가 깊습니다.

2000년에 조국에서는 뜻 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인민들은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힘차게 달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을 성대히 경축하였고 국토가 량단된후 처음으로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였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과 평양과 서울에서 진행된 흩어 진 가족, 친척 상봉, 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온 63명 비전향장기수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환… 참으로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이였습니다.

그 력사적기록이라 할수 있는 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 《금수강산》잡지의 올해분을 하나하나, 한장한장 번져 보는 갈피마다에서 조국을 찾아 왔던 동포들의 정다운 모습도 엿보이고 우리 잡지에 좋은 글도 보내 주신분들의 수고로움도 안겨 옵니다.

올해에도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찾아 왔습니다. 단체별로도 오고 개별적으로도 오면서 조국땅에 발을 짚고서야 향수 짙은 그리움을 달래였습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축원의 꽃을 안고 찾아 온 동포들도 많았습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로씨야,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등 동포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약속을 한것처럼 한시에 달려 왔습니다. 조국인민들과 함께 뜻 깊은 명절을 경축하면서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에 떨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자기들은 비록 이역땅에서 살고 있어도 조선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한길을 보란듯이 걸어 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4월 15일도 인상에 남게 기념하였습니다. 민족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을 잊지 못하여 대륙과 대양만리에서 노래와 춤을 안고 온 동포예술인들로 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제1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더욱 다채롭고 흥성거렸습니다.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동포대표단들도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해외동포들은 수시로 조국을 방문하여 고향도 찾고 조상의 묘에 성묘도 하고 가족, 친척들과 만나 즐겁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즈베끼스딴 따슈껜트시에서 왔던 엄계옥동포를 만나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4대째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그였습니다. 환갑이 넘은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습니다. 선조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마음이 격해 져 주저앉아 땅을 쓸어도 보고 흙을 줌에 그러쥐고 그 냄새를 량껏 들이키기도 하였다고, 그 땅을 돌아보고 예가 바로 내 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히 안겨 살고 싶은 나의 조국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에서 살고 있는 일흔세살난 김영숙동포를 만났을 때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조차 가슴이 달아오르고 눈시울이 젖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2살되던 딸과 헤여 져 수십년간을 찾아 헤매이다 44년만에야 품에 안아 보고 볼을 비빈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이 알알하였습니다.

만나는 동포들마다 사연 깊은 이야기였고 조국을 방문한 인상도 깊었습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 져 이역땅에서 살아도 해외동포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잇닿아 있었습니다. 하기에 동포들은 마음의 한끝을 항상 조국에 두고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려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가고 있는것입니다.

한해를 돌이켜 보는 이 시점에서 조국인민들은 해외동포들의 애국충정에 대해 감심하고 있으며 눈앞에 박두하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해 더욱 헌신해주리라는것을 믿어 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동포여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조국을 방문하는 걸음을 더 자주, 더 많이 해줄것을 기대합니다.

본사기자 리남



청년영웅도로 준공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홰불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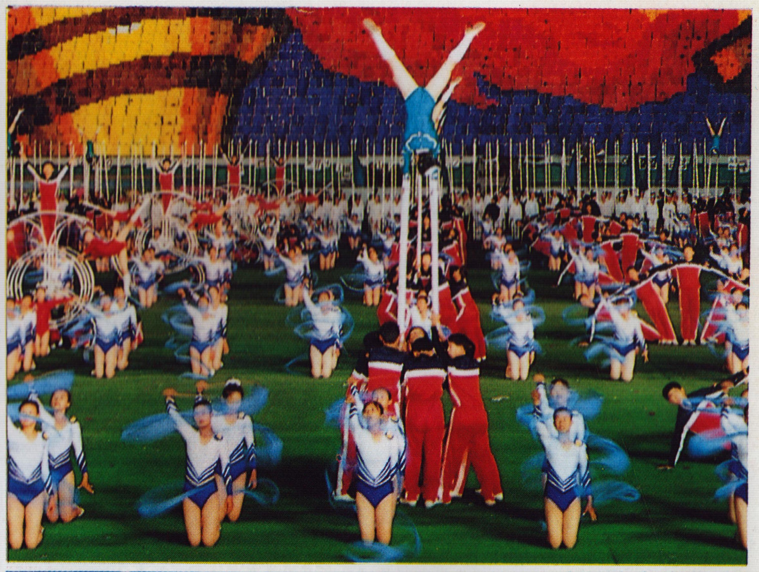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혁명의 성산 백두산사진전시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증정식





제1차 평양화초전시회



명절을 경축하는 수도 평양시의 일부



화가 김두량

김두량(1696-1763년)은 18세기 전반기 사회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린 화가이다.

그는 대대로 봉건정부의 문화기관인 도화서에서 근무한 화가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 김효강과 외할아버지 함재건도 이름 있는 도화서의 화원이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남 달리 뛰여난 그림솜씨를 보여 주었다. 그는 인물화와 함께 풍경화, 동물화 등을 많이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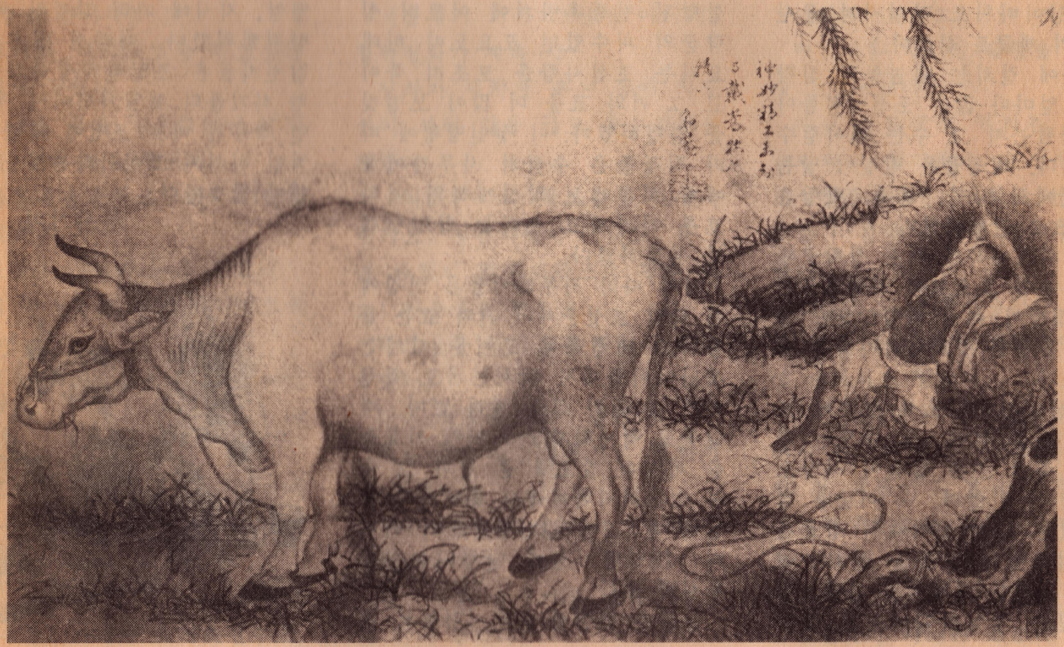
실학사상이 퍼지던 력사적시기에 창작활동을 진행한 김두량은 조국의 아름다움을 민족적형식에 담아 잘 그렸을뿐아니라 당시 농촌생활에서 자기 작품의 주인공을 찾아 냄으로써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속화의 개척자의 한사람으로 되였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소몰이군》, 《사시절》, 《들판에서의 사냥》. 《달밤의 계곡》, 《개》 등이 있다. 김두량의 작품중에서 유명한것은 《소몰이군》이다. 그림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의 한낮 쉴참에 부림소를 버드나무에 매놓고 서늘한 그늘밑에 누워 깊이 잠든 소몰이군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농민들의 고된 로동생활과 함께 로동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는 근면하고 소박한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에 따르는 농촌전경을 그린 《사시절》에서는 량반, 지주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최하층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통하여 량반통치배들의 착취적현상을 조소하고 피착취계급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표시하였다.

김두량의 사실주의적화풍은 그후 사실주의그림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김두량의 작품 《소몰이군》



《귀무덤》이 전하는 교훈

1592～1598년에 걸치는 일본의 조선침략은 조선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가져 다 주었다.

임진왜란시기에 감행된 왜놈들의 만행은 현 세기 일제가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서 감행한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파괴》하는 이른바 《삼광정책》의 원형으로 되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악한것이였다. 몇몇 사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요시노 진고자에몬 각서》라는 일기형식의 사료에는 부산성침공때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여 있다.

《높이 열여섯자의 돌담을 넘어 군사들이 물 밀듯이 성안에 돌진하였다. 적군사들은 거의나 죽고 성안의 백성들은 집안이나 으슥한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을 몽땅 끌어내여 넓은 공지에 집결시켜 보니 그 수효가 3만은 됐음직했다. 손을 비비며 살려 달라고 비는 백성들이 많았다. 아군은 명령일하 가차없이 그들에게 달려 들어 베고 짜르고 짓밟아 남녀로소는 물론 개, 고양이따위도 멸살시켜 군신(軍神)의 제물로 삼았다.》

7년간에 걸치는 왜놈들의 침략기간에 얼마나 많은 조선백성들이 살륙 당했는지 그 수는 헤아릴수조차 없다. 왜놈들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방화, 살륙, 략탈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가또 끼요마사가 이끈 침략군에 종군한 문관 오오꼬찌 히데모또는 《조선정벌기》에서 왜침략군이 경주에서 감행한 방화범죄사실을 이렇게 썼다.

《경상도의 옛 도시 경주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옛 수도인 경주에는 추녀 높은 집들이 사방으로 늘어 져 있었다. … 아군은 경주에 있는 30여만여채의 집들은 물론 대불전에도 불을 질렀는바 밤에도 천지는 대낮처럼 환했으며 그 불빛은 몇십리밖에서도 볼수 있었다.》

놈들은 전쟁초기 이른바 《전공》의 증거물로 조선사람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자기 나라에 보냈었는데 무게가 나간다고 하여 후에 귀 또는 코를 잘라 보내기로 하였다.

시마즈 마따시찌로 가문에 전해져 오는 《정한록》에는 《문록원년(1592년) 초겨울 시마즈 마따시찌로는 군사 5백여명을 시켜 적군 70여명을 붙잡아 그 목을 벴다. 다시 그 귀와 코를 잘라 나고야(당시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있었던 곳)에 보내여 감사장을 받았다.》고 씌여져 있으며 《끼요마사행장》에는 《문록원년 10월 끼요마사, 나오시게는 함경도일대를 공략하여 3천 3백여명의 목을 베고 그 귀와 코를 잘라 일본에 보냈다.》고 기록되여 있다.

전쟁초시기 놈들이 조선사람의 귀와 코를 베는 잔악행위를 감행한 곳은 주로 함경도, 강원도지방이였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강화담판이 결렬된 전쟁후반기에 이르러 침략군의 괴수였던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조선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 귀와 코를 더 많이 보낼것을 명령하였다. 이 살인명령에 따라 적장들은 수하의 사무라이들에게 하루에도 몇십개씩의 귀와 코를 베가지고 오라는 할당량까지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라이들은 전장에서 죽인 조선군사의 귀와 코는 물론이고 녀성들과 로인들 지어는 갓난아이들까지 닥치는대로 학살하여 그 귀와 코를 잘라 냈다. 재일동포 력사학자들이 여러 사료들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그 수는 일본력사학계에서 종전까지 추산해 온 2만～3만명정도가 아니라 10만명이상에 달한다는것이 확실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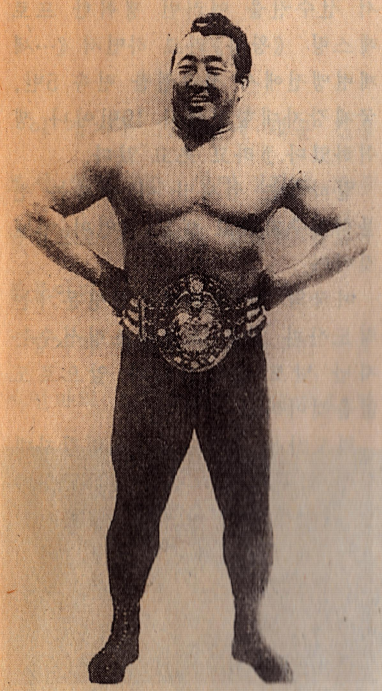
놈들은 학살한 조선사람들의 귀와 코를 큰 나무통속에 초절임 또는 염절임하여 배로 나고야, 오사까로 수송하였으며 오사까에서 교또까지는 수백명의 사무라이들의 《호위》밑에 우마차에 실은 통을 대낮에 큰길로 나르는 일대 시위행진까지 벌려 놓았다. 그리고 교또 방광사 대불전앞에 귀와 코를 묻어 무덤을 만들고 1597년 9월 28일 중 4백명과 수만명의 군중을 모아 《공양》이라는 이름밑에 큰 의식까지 벌렸다. 이렇게 해서 생겨 난것이 바로 《귀무덤》이다.

이 력사적증거물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으로 새기게 되는것은 오랜 조일관계사의 어느 력사적시점에서도 일본의 조선침략과 조선인학살 등 대범죄행위는 해당 시기 일본지배층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국가적인 범죄로서 저질러 졌다는것이다.

현 세기 일제가 감행한 조선침략과 병탄, 조선인대학살, 조선인강제련행, 종군위안부징발, 문화재략탈 등 모든 범죄행위도 일본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지배층의 명령, 지시에 따라 감행된 국가적범죄행위였다. 따라서 일본의 현 집권자들은 조일관계정상화를 위한 자기들의 제일차적이며 우선적인 책무가 바로 조선에 대한 국가적인 사죄와 보상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련





김 신 락

장편실화

나는 조선사람이다

리호인

(전호에서 계속)

《어떻습니까? 수술결과가 좋다고들 하는데?…》

《어쩌다가 세계프로레스링왕자가 칼침을 받다니?…》

가네다와 하리모또가 력도산의 침대곁에 앉았다.

력도산은 몸을 일으키더니 랭장고에서 술과 잔을 꺼냈다.

《나뽈레옹술이요. 한 50살쯤 되는거요.》

력도산은 잔에다 술을 부었다.

이때 병실문을 열고 담당간호원이 들어 왔다.

《병문안 오신분들이 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치의사가 알면 야단칠겁니다.》

간호원은 가네다와 하리모또에게 던졌던 눈길을 력도산에게로 옮겼다.

《간호부처녀, 이분은 국철의 비짜(투수) 가네다 쇼이찌선수요. 또 이분은 하리모또선수요.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이 력도산의 부탁이요. 이분들이 돌아 갈 때까지는 누구도 이 방에 들여 보내서는 안되오. 알겠지?》

력도산이 간호원처녀에게 애원하다싶이 사정했다.

간호원이 병실을 나갔다.

《하리모또, 이 력도산이 경기장에 다신 못 오를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드네.》

《무슨 소릴 그렇게 합니까?》

《회복기에 들어 섰는데… 래년 정월부터 경기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처가 그리 큰것도 아닌데 …》

하리모또와 가네다는 력도산에게 의아한 시선을 던졌다.

《상처가 커서 그런게 아니네. 협박전화가 계속…》

전화가 세차게 우는 통에 력도산이 하던 말을 끊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뭐요!… 이 력도산은 조선사람이요! 일본사람이 아니요. 죽으면 죽었지 일본사람으로 될수 없소! 마음대로 하오!》

력도산은 전화기를 쾅하니 내려 놓았다.

이내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력도산은 신경질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놈의 사나이라구!…》

력도산은 전화기를 병실구석에다 갖다 놓았다.

《또 협박전화입니까?》

가네다가 물었다.

《그렇소. 협박전화요. 하루에도 수십번이나 온단 말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나.》

《무슨 말을 들으라는겁니까?》

하리모또가 물었다.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거요. 이 력도산이 조선사람이 아니라 일본사람이라고 말하라는거요. 즉 김신락이 아니라 모모다 미쯔히로라고 말하라는거요.…》

병실문을 열고 강승민이 들어오는 바람에 력도산은 하던 말을 끊었다.

강승민은 쪽걸상을 들고 와 하리모또의 곁에 앉았다.

《내가 들으면 안될 소리요?》

《안되다니…》

력도산은 자기의 심중을 절절하게 토로하였다.

래년 도꾜에서 열리는 제18차 올림픽에 참가하는 조선선수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결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그 조국선수단의 인원으로 되어 올 딸과의 감격적인 상봉에 대해서도 말했다.

《…1964년은 이 력도산에게 있어서 귀중한 해요. 그런데… 64년의 첫 해돋이도 보지 못할것 같소. 미국놈들과 일본놈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거요. 살고 싶으면 일본사람으로 되라는거요.

김신락이 아니라 모모다 미쯔히

로가 되라는거요. 그리고 조국으로 향한 이 력도산의 마음을 돌려세우라는거요.

나는, 이 력도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조선사람으로 살다가 죽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 다만 한스러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뵙지 못하고 일본땅에서 죽는것이요.

가네다, 하리모또, 이 력도산의 평생소원이 다름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경기장에서 제노라하는 미국선수들과 일본선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 눕히는것이였소. 그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는것이 한스럽소. …》

력도산은 《정의의 오른손》을 꾹 쥐였다.

그의 입술은 떨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함싹 고여 가랑가랑했다. …

력도산이 왜 죽었는가? 누가 죽였는가?

이상에서 본 몇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다.

력도산은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않고 죽었다.

력도산이 최후의 힘을 모두어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세워 높이 든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집게손가락이 유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 집게손가락을 두고 여러가지 해석들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프로레스링왕자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프로레스링협회>를 부탁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이다를 달라!》 …

과연 력도산의 《정의의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가?… 아니다. 《나는 조선사람이다!》라고 웨치고 있었던것이다.

그가 웨친 조선사람이란 나라없던 망국노의 조선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사람이다.

이야기를 끝내며

력도산의 장의에 대해서 《일본프로레스링사》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력도산은 죽었다! 12월 15일 오후 9시 50분 력도산은 돌아오지 못할 사람으로 되였다. 장페색을 병발, 재수술도 소용 없었다. 게이오병원에서 해부를 하였는데 력도산의 장은 다른데도 썩고 있었다. 18일에 밀장을 하였으며 살을 에이는 찬 바람이 부는 20일에 도꾜의 이깨가미절간에서 장의를 거행하였다.

령구차가 자택을 나올 때 하늘이 갑자기 흐려 지더니 돌풍이 일어 났다. 장례행렬이 끊어 지지 않았다.》

《력도산련합회사》 타자수로, 력도산의 서기로 오래동안 일해온 나쯔꼬는 《…저는 력도산의 장의를 생각하면 지금도 일본사람으로 태여 난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럴수 있을가?》라고 실토하였다.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기에 너서기가 그렇게까지 말했겠는가?…

만약 력도산이 위대한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상가집개만도 못한 버림을 받은 인간, 일본사람이 아닌 《일본사람》, 조선사람이 아닌 《조선사람》으로 되였을것이다.

《체육백과사전》 (상)에는 력도산에 대하여 세계프로레스링련맹전과 국제프로레스링강자대항전에서 선수권을 여러번 쟁취한 프로레스링 《왕자》라고 하면서 《…세계련맹전에서 선수권을 련속 5번, 국제강자대항전에서 19번이나 쟁취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말하기는 쉽지만 이 수자는 천문학적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미국의 한 프로레스링전문가는 력도산과 같은 프로레스링선수는 지난 날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력도산은 국제프로레스링강자대항전 선수권을 6년동안이나 한번도 패한적이 없이 련속 쟁취하였으며 세계프로레스링련맹전에서 5번이나 선수권을 련속으로 쟁취하였다.

뿐만아니라 아시아프로레스링 복식선수권을 7번이나 쟁취하였으며 태평양연안복식선수권, 국제강자대항전복식선수권, 하와이복식선수권을 쟁취하였다.

그리고 WWA선수권을 2번 쟁취하였으며 아시아프로레스링선수권과 태평양연안선수권을 쟁취하였다.

력도산이 40대에 들어 서서도 청춘의 기백으로, 일당백의 기백으로 패배를 모르고 싸울수 있은것은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품과 영광스러운 당의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바로 위대한 조국의 품이 있었기에 그는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위협공갈속에서도 조선의 넋을 지니고 애국의 길, 충성의 길을 곧추 걸어 갈수 있었다.

(끝)

범 사 정

이 정자는 1700년에 세운 건물로서 앞면 2간, 옆면 2간에 모루단청으로 간소하게 장식한 합각식 건물이다.

정자의 간결한 건물구조는 이곳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시원하고 단정하여 한층 더 아름답고 경쾌한 맛을 내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나오는 샘이 거꾸로 쏟아 져 은하수인가 싶은 폭포의 장쾌함을 노래하면서 이 암대우에 올라 서면 마치 안개바다우에 떠가는 떼와 같다 하여 《범사정》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개성의 박연폭포옆에 자리 잡고 있는 범사정은 오늘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글 및 사진 김광진




1945
55
2000